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주최_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_  김제시

주최  동학동농민혁명기념재단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장소 : 김제문화예술회관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  김제시

1부 주제발표

제1 발표

- 07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향후과제
- 이병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제2 발표

- 28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 이상균 | 전주대학교 교수

2부 주제발표

제3 발표

- 35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
- 송만오 |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제4 발표

- 60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
- 원도연 | 전북발전연구원장

종합토론

종합토론좌장 :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장

토론1

- 35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
- 이진영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토론2

- 35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 정명희 |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장

토론3

- 35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 남해경 |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4

- 35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토론
- 문병학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향후과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향후과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 머리말
2.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3.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4. 향후과제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김제 원평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평은 원평집회가 있었던 곳이며, 집강소가 설치되어 활동을 전개했던 곳이며, 구미란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김덕명장군의 출생지이자 근거지이며 한때 전봉준장군이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김인배장군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제 원평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지금까지 김제의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김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거의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하여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

1)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사업기본계획』, 전라북도, 1999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조사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5

『김제땅 동학농민혁명』,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0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김제시, 2010

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2.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김제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한 사건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원평집회, 원평집강소, 구미란전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이중에서 원평집강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주 제시되지 않았던 자료가 있어 이를 검토해보고, 구미란전투와 관련해서는 전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를 꼼꼼히 살펴서 당시 전투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원평집회

189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동학교단 지도부는 충청도 공주, 전라도 삼례, 서울 광화문, 충청도 보은 등지에서 동학교조의 신원, 지방관의 가렴주구 금지, 척왜양 등 세 가지 요구를 내건 집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를 교조신원운동이라 한다.

교조신원운동은 1893년 3월부터 시작된 보은취회에서 최고조를 맞이하게 되는데, 보은취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2만 7천명 이상의 동학교 및 일반 민중들이 보은 장내리에 집결하여 척왜양창의의 기치를 내걸고 4월 초순까지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였다.

보은취회가 한창일 무렵 전라도 금구현 원평에서도 동학교도들이 집회, 즉 원평취회가 열렸다. 금구현 수류면 원평리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일성록(日省錄)』, 『취어(聚語)』, 『속음청사(續陰晴史)』, 『동도문변(東徒問辯)』, 『토비대략(討匪大略)』, 『남원군종리원사부동학사(南原郡宗理院史附東學史)』, 『시천교역사(侍天教歷史)』 등 관변측 자료, 유생측 자료, 동학교단측 자료 등 1차 사료에서 확인된다.²⁾ 원평집회는 1893년 3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는 보은취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이다. 『일성록』이 원평집회의 실재와 시기를 증언해 주고 있다. 『일성록』의 고종 30년(1893년) 3월 27일자 기사는 새로운 전라감사 김문현이 고종에게 사패(멀리 부임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인사 하는 것)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³⁾

고종이 이르기를 말이란 한번 두 번 옮기다보면 터무니 없는 말을 지어내게 되는 것이나 족히 믿을 것이 못

1)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박맹수, 『금구 원평취회』, 『김제당 동학농민혁명』,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0, 22쪽
3) 김은정·윤경민·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9, 95쪽

된다. 호남에서도 금구에 가장 많다하니 전주감영에서는 어느 거리인가, 먼저 그 소굴을 격파하여 금단하고 일소하는 방도를 삼도록 하라, 문헌이 답하기를 30리 가량 되는데 금구 원평에 과연 취당하고 있다 하옵니다.⁴⁾

원평집회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1만명이 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원평집회의 주도자는 전봉준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창렬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지도자인 전봉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세력을 형성하였는가에 대해, 동학교문의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봉준이 활동을 전개하여 1893년 3월 독자적 세력집단으로서 ‘금구취당’을 형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893년 사발통문 서명자로 출현하였으며 이후 고부민란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로 출현하였다’⁵⁾고 주장하여 금구취회, 즉 원평집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조경달은 ‘금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봉준의 투쟁 기반은 이미 이 금구집회에서 던져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⁶⁾ 거나 ‘금구 집회는 스스로의 역량을 집약시켜 보은 집회 참가자를 끌어들이 단번에 반정부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⁷⁾는 견해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배항섭은 이와 관련하여 ‘금구취회에 교단과 지향을 달리하는 일군의 세력이 참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이것은 이미 1892년 11월의 삼례취회에서부터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하여 교단측의 지시와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던 전봉준 등 변혁지향세력의 활동이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⁸⁾고 원평집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2) 원평집강소 활동

전라감사 김학진은 1894년 7월초에 농민군에게 전주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군을 대표하는 전봉준과 김학진 두 사람은 7월 6일 전주성에서 회담을 갖고,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대타협을 한 뒤 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한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전라감영에는 전라좌우도소가 설치되고 전봉준의 비석 송희옥이 도집강을 맡았다. 전봉준은 통문을 보내거나 각지를 순행하면서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였다. 집강소의 기능과 역할은 원칙적으로 무기 관리와 부랑배 단속과 같은 치안유지와 합법적인 수준에서의 폐정개혁에 있었다. 이는 농민군도소를 집강소체제로 재편하여 집강소가 치안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4) 『일성록』, 고종 30년 3월 27일조

5)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1991,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4쪽

6)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2008, 역사비평사, 131쪽

7)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2008, 역사비평사, 133쪽

8) 배항섭, 『갑오농민전쟁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7쪽

이러한 집강소는 당연히 금구 원평에도 설치되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덕명이 전봉준의 최측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주회담 직후였을 것으로 보인다.⁹⁾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관찰사는 전봉준 등을 감영으로 맞이하였다. (중략) 관찰사는 전봉준과 관민상화 방책을 의논한 뒤 각 군에 집강을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동학도들은 각 고을에 활거하며 관공서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서기·성찰·집사·동몽과 같은 직임을 두었는데 원연히 관청을 이루었다. (중략)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 원평을 근거로 전라우도를 호령하고,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을 근거로 전라도를 다스렸다.¹⁰⁾

위 기록에 따르면 전봉준이 금구 원평에 집강소를 근거로 전라우도를 다스린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전봉준은 전라감영 안에 설치된 전라좌우도소를 총괄하는 총지도자였다.

금구 원평 집강소는 금구 용계동 출신의 대접주 김덕명이 다스렸을 것이다.

다만 금구 원평 집강소는 전봉준이 근거지로 삼았을 정도로 여러 집강소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전라감영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전라좌우도소 집강소를 외곽에서 보위하고 전봉준을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금구의 집강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을까? 보통 군현단위로 설치된 집강소는 전라좌우도소가 전라감영 안에 있었듯이 관아 안에 둘 수 있었다. 금구 역시 농민군의 힘이 우세한 상황에서 관아 안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집강소는 금산면 원평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김덕명이 이끄는 투쟁본부인 도소가 집강소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된다.

양호선봉장 이규태가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한 『순무선봉진등록』에 김덕명 체포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일월 초팔일, 태인현 수성좌수가 보고합니다. 태인현의 수성군이 이달 초 1일 도내의 거괴 금구현 용계동(龍溪洞)에 사는 김덕명(金德明)을 잡아 대령하였습니다. 이놈은 원평점(院坪店)에 도소를 크게 설치하고 사사로이 공전·공곡을 받아들이고 평민을 침탈한 자입니다.

즉시 장교와 나졸을 정해 수성군과 같이 순영문으로 압송한 뒤에 상황을 급히 보고합니다.¹²⁾

10) 『갑오약력』,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9, 79쪽

11) 김양식, 앞의 글

12)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7, 402쪽

이 내용은 금구의 김덕명을 체포하여 압송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덕명에 대해 원평점에 도소를 크게 설치하고 사사로이 공전, 공곡을 받아들이고 평민을 침탈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원평점에 도소를 크게 설치하고’이다.

점이란 상점 등 상행위를 하는 곳으로 원평은 장이 섰던 곳으로 동학농민군은 이곳에 도소를 세워 활동하였던 것이다. 도소를 세워 활동했다는 것은 이곳에서 집강소활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원평집강소의 위치가 옛날 원평장터와 매우 가까운 거리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신뢰할 만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성의 유학자 변만기가 서술한 『봉남일기』에서도 원평에 도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인(泰仁)에서 패전한 도인(道人)의 말을 듣자니, ‘27일 새벽에 경군과 왜군이 전주부중에서 소토령(蘇土嶺)을 넘지 않고 금구 경계를 돌아와서 아침밥을 먹을 때, 원평(院坪) 도인들의 진을 덮쳐 불의에 도륙을 내니, 도인들 중 부상을 입은 자들이 수백 명이었고, 살아남은 자들 수만 명은 일시에 내가 터지듯 흩어져 도망쳐서 진을 태인읍(泰仁邑) 뒤 선양현(仙央峴)으로 물렸다. 그런데 그날 경군(京軍)이 추격해와 접전을 벌였는데, 도인들 진영이 또 패하여 부상을 입은 자들이 무수하였고, 목숨을 건져 도망친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전명숙(全明叔)은 겨우 몸만 빠져 나갔다. 경군(京軍)은 4~5백 명에 불과하였는데, 지나는 읍마다 전연 폐를 끼치지 않았고, 놋화로(銅爐器)를 싣고 다니면서 스스로 불을 때어 밥을 해먹었다. 전주성(全州城) 밖, 주 접주(朱接主)의 집을 태우고, 원평(院坪) 도소(都所)를 태웠으며, 태인(泰仁) 동동(東洞)을 도륙내었으나,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살해하지 않았다. 패전한 도인(道人) 수백 명 중 본읍(本邑)을 지난 자들은 거의 모두가 경기(京畿)·호중(湖中)·전주(全州) 사람들이었고, 탄환을 맞고 상처를 입은 자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들은 광주(光州) 덕산(德山)의 손화중(孫化中) 진영으로 갔다.’ 라고 하였다.¹³⁾

또한 다음 기록에서도 원평에 도소 즉 집강소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일본은 동학농민혁명 이 일어나자 곳곳에 상인 유학생 관광객을 가장한 첩보원을 보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일본의 낭인 14명이 순창에 있는 전봉준을 두 차례 만나기도 했다.

서울에 있던 일본인 우미우라(海浦篤彌)도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구인 의사, 약사 두 사람과 함께 전봉준을 만나러 7월 초순 서울을 떠났다. 이 들 일행은 물어물어 전봉준을 따라다녔다. 그런 과정에서 원평집강소에서 묵으면서 원평집강소의 동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들은 능주에서 이르러서 전봉준을 만난 뒤 서울로 귀환했다. 우미우라는 서울에서 「동학당시찰일기」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해서 보고했다.¹⁴⁾

13) 『봉남일기』,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9, 514쪽

7월 17일 마찬가지로 성장미복하여 오전 8시 안심하고 장씨의 집을 물러나 팔을 부여잡고 원평으로 향하길 20리, 가까이에 원평에 도착하였다. 황건을 두르고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 자와 만났다. 나는 그를 불러 도소가 있는 곳을 물었다. 그는 기뻐하며 우리들을 인도하였다. 길 옆에 하나의 작은 언덕이 있고 소나무가 그림자를 이루었다. 황건을 두른 자, 자색 수건을 두른 자, 녹색 수건을 두른 자, 약 4, 50명 모두가 화승총을 휴대하고 좌우에 서로 섞여 있었다. 총이나 건을 휴대하거나 두르지 않는 자 또한 약 120, 130 명 전후로 서로 왕복하였다. 우리들 일행이 이르자 길이 저절로 열렸고, 한 단 높은 곳에 세 사람이 오연(傲然)하게 중앙에 서로 정좌(鼎坐)하여 있었다. 먼저 도소의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은 문자를 잘 몰라 쳐 달라고 하니 그는 시키는대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일본과 청병이 조선에 온 이유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었다.

(중략) 공들은 이미 보국안민으로 깃발을 세웠는지 모르나, 공들은 무엇으로 여기에 대처하려고 하는가? 그가 겨우 붓을 들어 답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서 모인 이유는 본래 보국안민뿐이었으나 일의 대소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대도소의 명령에 따른다. 공들이 만약 알리고 또 계획하는 바가 있으며, 원하건대 대도소를 찾아가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곧바로 대도소가 있는 곳을 물었다. 지금 옥과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루하루 거처가 일정하지 않고 길을 가는 도중에 시민에게 이에 대해 물으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가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치에 복종하고 의에 감동하는 기색이 그들 대화 속에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하면 조원집 및 김윤희로 연령은 아직 40세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소위 금구 회소의 도소 즉 통령으로서 기타 도찰, 모 성찰, 모 일포, 모 이포인 자가 있고, 병원(兵員)은 1천명으로 이것이 금구회소가 통솔하는 바라고 했다. 지계꾼은 사방에서 쌀, 보리를 운반해 왔다. 징발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섬의 수가 약 30여, 우리들은 이로부터 남쪽 옥과에 가는 것으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먼저 오찬을 들려고 하였다. 도소에서 명령을 전하여 2, 3명의 아이로 하여금 우리들을 음식점에 인도하게 하였다.

식사가 끝난 후 조원집 도소가 와서 송별인사를 하였다. 오후 2시 동학도 10여명의 배웅을 받고 원평을 출발하여 7시 태인을 지난 동막골 주막에서 투숙하였다.¹⁵⁾

우미우라 일행은 1894년 7월 17일(양력) 오전 8시 숙소를 출발하여 20리 정도 떨어진 원평에 도착하였다. 대략 오전 10시 쯤으로 추정된다. 우미우라는 원평에 도착한 뒤에 도소를 찾아 도소의 통령인 조원집과 김윤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경에 원평을 떠났다. 이들이 원평에 체류한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이다. 이들의 목적은 전봉준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봉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그밖에 관심 사항에 대해 조원집과 김윤희 등 원평 도소의 책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도소 즉 집강소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은 원평에 도착하기 이전에 도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원평에 도착하자마자 도소를 찾고 있다. 이들이 원평에 온 시기가 7월 17일로 음력으

15) 이이화, 「동학당시찰일기 해제」, 『김제땅 동학농민혁명』,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0, 42-43쪽

로 환산하면 8월 중순이다. 7월 6일부터 집강소활동을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때는 집강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시기이다. 따라서 당시 적어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집강소체제에 따라 농민군의 활동이 있었고 특히 농민군 활동이 왕성하였던 금구 그중에서 원평에서 집강소활동이 활발하여 이들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우미우라 일행이 원평에 도착하여 회승총을 휴대하고 무장한 4, 50명을 먼저 만나고 조금 뒤에 무장하지 않은 130명과 대면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대략 200명 정도이다. 즉 당시 도소 즉 집강소를 중심으로 약 2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만큼 집강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원평에 도착하여 주변 경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길 옆에 작은 언덕이 있고 소나무 그림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미우라가 설명하고 있는 집강소의 모습의 현재의 원평 집강소로 알려진 장소를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소의 책임자는 통령이며 도소에는 이밖에도 도찰, 성찰, 일포, 이포 등의 직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원평에 도소 즉 집강소가 있었으며 현재 알려진 집강소터가 바로 1894년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던 그 집강소임이 분명해 보인다.

3) 구미란 전투¹⁶⁾

논산 황화대 전투에서 패한 전봉준이 이끄는 3천명의 동학농민군은 1894년 11월 19일 전주에 도착하였다. 전라감사의 집무실이던 선화당에서 며칠간 머문 전봉준은 11월 23일 금구 원평으로 옮겼다. 이사이 관군과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이 계속되었다. 선봉장 이규태는 11월 21일 공주를 출발, 노성 논산 강경 여산 삼례를 거쳐 11월 26일 전주에 도착하였다. 이두황의 장위영군은 황화대전투 후 노성, 은진, 강경, 용안, 웅포, 임피, 황등, 삼례를 거쳐 11월 25일 전주에 도착하였으며 교도대도 진안, 고산을 거쳐 11월 24일 전주에 도착했다. 전봉준은 전주에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나 머물렀다. 그리고는 원평으로 이동하였다. 후퇴하는 과정에서 왜 5일간이나 전주에서 머물렀다가 원평으로 이동하였을까? 전봉준은 후퇴하는 과정이었지만 재기의 항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주

16) 1894년 11월 25일 원평 구미란 일대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과 관군일본군 간의 전투를 원평전투 또는 구미란전투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본 발표문에서는 구미란전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구미란 전투지에는 아직도 당시 전사한 동학농민군의 무덤이 남아 있고 구미란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선연적으로 구미란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화당 전라감사 집무실에서 재기의 향전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식량을 준비하고 전투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농민군을 토벌한 관군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 달 24일에 파송(派送)한 대관(隊官) 최영학(崔永學)이 병정(兵丁) 1대(隊)와 일본 군대 1대를 거느리고 금구읍(金溝邑)에 가서 유숙(留宿)하고 25일 8시에 원평(院坪)에 도착하여 동도(東徒) 1만여 명과 접전했는데, 손시(巽時)부터 신시(申時, 오후 3~5시)까지 적도 37명을 사살하여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획득한 군물(軍物)은 모두 일본 소대장(小隊長)에게 소속시켰는데, 전(錢)이 3천냥(兩), 무명(木)이 10동(同), 회룡총(回龍銃)이 10자루, 조총(鳥銃)이 60자루, 연환(鉛丸)이 7석(石), 화약이 5쾌(櫃), 도창(刀倉)이 수백 자루, 자포(子砲)가 10좌(坐), 궁시(弓矢)의 피갑(皮甲) 및 문적(文蹟)이 2롱(籠), 소(牛)가 3마리, 나귀(驢)가 2필(匹), 말이 9필입니다. 그 중에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모조리 불에 태웠고 백미(白米)는 6백석 가까이 되는데 옮길 수가 없었고, 그날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금구읍으로 회군(回軍)하여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일본 군대는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를 치보(馳報)합니다.¹⁷⁾

이 보고의 주된 내용은 전투 후에 동학농민군으로부터 획득한 군수물자이다. 무기로는 회룡총이 10자루, 조총이 60자루, 연환이 7석, 화약이 5쾌, 도창이 수백 자루, 자포(대포)가 10좌 등이 있었으며,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동물로 소 3마리, 나귀 2필, 말 9필이 남아 있었다. 또 의복과 식량인 무명 10동과 백미 6백석이 남아 있었고 돈도 3천냥이나 남아 있었으며, 문서를 보관하는 문적도 2롱이 남아있었다. 즉 무기, 의복, 식량, 이동수단, 문서 등 종합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후퇴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이 보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군수물자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봉준은 원평 구미란에서 재기의 향전을 도모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봉준이 원평 구미란을 재기의 향전지로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금구면 수류면에 속했던 원평은 일찍이 금구 원평집회가 열렸던 곳이다. 1893년 3월 동학교단이 주도한 보은집회 당시 호남지방 동학지도자들에 의해 바로 원평에서 있었다. 전주화약 후 집강소 시기에 전봉준이 거점을 두고 전라우도 집강소활동을 지휘했던 곳도 여기이다. 풍부한 물산의 집산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자연적 조건에다 당시 민중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미륵신앙의 본산지로서의 배경도 뒷받침되었다. 또한 농민군 진영의 총참모를 맡았던 금구대접주 김덕명의 관할지역이었던 이곳은 호남지방 동학의 주요 포교지였다. 또 전봉준이 어린시절 김덕명의 집에서 식객노릇을 하며 인근 종성마을(현 봉남면 향촌리)에 있는 서당에 다녔다는 구전도 있다.

17) 「선봉진정보첩」,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90쪽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 같은 지역의 특수한 분위기에서 공주 우금치 패배후 수세에 몰렸던 동학농민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재기의 향전장으로 원평을 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동학농민군과 관군·일본군 간의 구미란전투는 11월 25일 이루어졌다.

이 달 24일 미시 경에 파견한 대관 최영학(崔永學)이 교도병 1대와 일본군 1대를 거느리고 진군하여 금구읍(金溝邑)에 이르러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5일 묘시 경에 행군하여 나아가서 곧 원평에 도착하니 적도 수만 명이 한 번 나팔을 불자 진(陣)을 삼면(三面)으로 벌여 이미 품(品)자 모양을 형성하고, 서로 천 보(步)의 거리를 두고 서로 포를 쏘며 전투를 하였습니다. 손시부터 신시에 이르기까지 포성이 우레와 같고, 탄환이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적들은 산 위에 있고 우리 군대는 들에 있었는데 사면으로 포위하고 함성이 땅을 흔들고 불꽃과 연기가 안개를 이루어 원근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관 최영학이 칼을 뽑아 적군을 향하여 먼저 산 위로 오르며 크게 호령하며 지휘하자 동서로 나뉜 부대가 한꺼번에 힘을 써서 다투어 먼저 올라가고 혹은 찌르고 혹은 목을 베어서 죽인 적이 37명이었으며, 남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 도망하였습니다. 산세가 가파르고 험하고 해는 이미 저물려 하고, 게다가 적도들의 행색이 모이면 동학임을 알 수 있으나 흩어지면 농민의 모습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격하여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¹⁸⁾

당시 관군은 교도병 1대 약 350명였고 일본군 부대는 약 100명 정도였다고 한다. 동학농민군은 수만, 수삼천, 만명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략 만명 정도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투의 형태는 동학농민군은 구미란 마을 뒷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관군과 일본군은 마을 앞 평지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구미란 마을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이 먼저 원평에 도착하였고 관군과 일본군이 뒤따라 오는 과정이었으므로 농민군이 먼저 와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관군과 일본군에 대비하는 형국이었다.

농민군은 품자 모양을 형성하여 전투에 임하고 있다. 즉 전봉준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의 거리는 천보 즉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600m 정도인데 현재 구미란 마을 뒷산과 앞쪽 농경지를 고려하면 전투의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서로 포를 쏘며 전투를 하였다는 표현에서 농민군과 관군·일본군이 포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관군이 수거한 농민군의 물자를 통해서 확인된다.

전투는 손시부터 신시까지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7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포성이 우레와 같고 탄환이 비오듯 하였으며 함성이 땅을 흔들고 불꽃과 연기가 안개를 이

18)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7, 243쪽

루어 원근을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투시간이나 전투상황을 짐작해 보면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투의 결과는 농민군의 패배였다. 농민군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많은 농민군이 사상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군수물자를 챙기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다. 전투 이후 실상은 처참하였다. 전투에서 숨진 농민군의 시신을 한달 가까이 거두지 않아 썩은 시신의 팔·다리를 개가 물고 다녔으며 선달그믐계서야 주민들이 구미란 뒷산에 몇십 구씩 시신을 묻었다고 한다. 당시 40호에 이르던 구미란 마을은 거의 모두 불에 탔으며 전투가 끝난 뒤에도 벽장 속이나 우물 속에 숨었던 농민군이 관군에게 넘겨지는 수난을 겪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28일에 전주에서 전진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거니와, 같은 날 30리를 가서 금구현(金溝縣)에서 점심을 먹고, 20리를 가서 원평(院坪) 거리(巨里)에 도착해보니, 25일에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뒤라 가게 및 여염집 40여 채가 불탔으며 비류들이 저장해둔 곡식 수백석과 민가의 물건들이 모조리 불에 타서 보기에 몹시 처절하였습니다.¹⁹⁾

3.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1) 원평집회터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원평천 일대가 원평집회가 있었던 원평장터로 지금도 5일장이 서는 곳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전라도 남부와 고창, 무장, 고부, 정읍 등지에서 육로로 서울로 갈 때 원평장터를 거쳐야 했으며 1930년대까지도 60여개의 주막이 성황을 이루었고, 집산지로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보의 집합지였다. 이곳은 1893년 3월 11일 전라도의 동학도들이 척왜양의 기치 아래 금구 원평집회가 있었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입성 전날 홍계훈의 경군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종이 하사한 내탕금 일만냥을 가지고 온 선전관 이주호의 2명과 장성 황룡에서 생포한 고종의 특사 이효응, 배은환 등 5명을 참수하여 동학농민군의 확고한 혁명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소이다. 현재 이곳에는 3·1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원평집회와 관련된 안내판이나 기념물은 세워져 있지 않다. 동학농민혁명 전사로서 원평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전봉준 등이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곳에 원평집회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판이나 원평집회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지

19) 「순무사정보첩」,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377-378쪽



그림 1) 원평집회가 열렸던 원평장터

석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원평집강소

원평집강소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원평장이 서는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가옥은 ‘동래개’라는 별명을 가진 백정 출신 ‘동록개’가 동학의 개혁평등사상에 감복하여 김덕명대접주에게 바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원평집강소에 대한 근거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에서 언급한 『순무선봉진등록』, 『봉남일기』, 『동학당시찰일기』 등에서 원평에 도소가 있었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원평에 집강소가 설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서 상량문에 ‘光緒 捌年 壬午三月二十’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광서 팔년은 1882년으로 이 때 이 집이 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평지역에 살았



그림 2) 원평집강소



던 사람들은 이 집이 집강소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은 그 집이 보잘 것 없게 생겼는데 박정희 때만해도 구식풍이 나면서 윤치 있던 집이었다고, 그 앞이 전부 전답이었어, 그 전답 주인이 작은 아버지였어, 작은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집에서 도꾼들이 모여서 경도 읽고 그랬다고 하드만,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학자라서 시원찮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닌 게 내가 잘 기억하지, 도꾼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랬다고 그래, 1965년엔가 초가지붕에서 기와로 바꾼 걸 기억해.²⁰⁾

돌아가신 최순식 선생이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묻고 땀겨는데 원평장에 살던 김은경씨 부친이 그런 말을 했어, 백정 등록개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백정을 양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동학에 감탄해서 그 집을 바쳤다고 해, 한일합방 후 최초의 면사무소가 그 집이었어.²¹⁾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천도교 교령 손병희가 호남을 순시할 때 거기 왔었다고 그래, 그 집에 손병희가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어.²²⁾

그 건물을 멸시당하는 세상에 한이 맺힌 백정이 증조님께 바쳤다고 들어어, 그 건물에서 증조부님이 활동을 하셨던가 봐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²³⁾

나는 일제 해방이 될 즈음 이 터로 이사 왔었어, 그 당시 초가였고 이후에 이 집의 지붕, 마루, 문 등을 고쳤지. 어른들 말씀이 고기장사를 하던 백정 등록개의 소유였고, 고기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시 원평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이었는데, 나중에 이곳에서 전봉준 장군이 정치를 하였다하더라고, 그리고 이 집을 고치면서 작은 방 중앙에 상량문을 보았어, 나는 글을 잘 몰라서 읽을 수는 없고 어른들 말씀이 수백 년 된 집이다 하더라고.²⁴⁾

내가 어렸을 때 그 당시 어르신들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기로 이 집에서 동학군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고 숙소로도 활용했다 하시더라고, 백정 등록개가 부자였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동학군에게 기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²⁵⁾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가옥이 원평집강소라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하겠다. 1894년 집강소가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되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실물이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때 원평집강소는 매우 가치가 있는 집강소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20) 손영진(1929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6-3 거주), 2010년 2월 6일 증언, 이하 증언은 사단법인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최고원 상임이사가 녹취 체록하였음을 밝혀둔다.

21) 조영욱(1942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6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22) 최만식(1933년생, 정읍시 금봉동 내장산실버아파트 101-505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23) 김석태(1944년생, 김덕명 대접주의 증손자,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9-37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24) 김영태(1920년생, 현재 소유주,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3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25) 김성평(1956년생,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24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그리고 전봉준과 김덕명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집은 거의 쓰러져 갈 지경에 놓였다. 새롭게 출범한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여러가지로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곳은 집장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그리고 김제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이 힘을 합쳐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안내표지판과 표지석 사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구미란전적지와 농민군묘역

원평 구미란전투지는 구미란마을, 구미란마을 뒷산 그리고 구미란마을 앞 일대이다.

그런데 구미란 마을 뒷산에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사한 동학농민군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구미란전투와 농민군묘역에 관한 주민들의 증언은 당시 구미란 전투의 실상과 농민군무덤에 대한 실상을 짐작하게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친정어머니가 뒷산 밭을 일구는데 장대한 뼈가 나왔다고 하대요, 내 눈으로는 무서워서 직접 못보고 그 뼈를 어떻게 했는가는 나도 몰라, 우리집안 오빠가 큰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 동네 이쪽저쪽



그림 3) 구미란전투가 있었던 구미란마을과 뒷산

서 싸움이 이렇났다고 하데, 그전에는 냇물이 여기 바로 앞으로 지났었고, 냇가 이쪽 저쪽에서 전쟁이 났다드만, 천정어머니 가시고 나서 내가 밭을 지어먹을 때 전봇대를 세웠는데 거기서 총알 같은게 나오데, 이만 허더라고(엄지손가락 반 마디 정도를 가리키며) 납같이 생겼더라고요, 금계 내가 아는 건 그것 뿐인데 어른들이 뭘 말해야 건성으로 들어서 잘 몰라.²⁶⁾

그 전에 뒷동산에 총 쏘고 크게 싸웠다고 그래, 그랬다는 말을 들었고(혹시 한국전쟁 당시 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6 25 얘기는 아니며, 6 25때는 내가 스물 다섯 살 땀겨 봐서 잘 알지, 지금 얘기는 동학난 때 그랬다는 얘기에, 내가 놀다가 납탄이랑 주웠어, 그리고 그 때 동학난 때 구미란 사람들이 어유동으로 피난 갔다는 소리를 아버지한테 들었어.²⁷⁾

예전에 갑오난이라고 했지, 여기 사람들은 지금도 ‘너한테 죽을 것 같으면 갑오년에 빈총 맞아 죽었다’ 고 하지. 그때 동학군들이 몰살당해서 학수재 넘어가서 무덤이 짝 쌓여 있었어, 무덤이 즐비했는데 이제는 밭 만들고 그랬지, 내가 학교 다닐 때 해방 막 되어가지고 역사 선생이 여기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다고 하고, 전봉준이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드만, 동학군이 어디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덤 연고지는 하나 없었어, 나도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지, 나중에 동학군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산사람이 되었어, 이병(토벌군)들이 나중에 토벌하고 다닐 때 우리 할아버지도 무서워서 이렇게 큰 머우대 속으로 숨었으나, 근대 이병들이 칼로 찍어서 여기저기 쑤신 게 옆구리를 찔려서 다쳤다고 하데, 동학군은 아니었고 이병들이 무서워서 숨은 거였어(당시 동학농민군의 시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들으신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냥 거창하게 있었다는 말만 들어지, 그걸 누가 세어 봤겠어, 구미란 들어가는 바위독골 가는 길목 있잖아, 장날에 약장사 와서 굿 하던데 지나서 말여, 거기 모퉁이에 바위가 있었는데 굴 같은 게 우리 어릴 때도 그 밑에 있었거든, 동학난 때 사람 죽은걸 거기다가 그냥 쑤셔놨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다 못 묻고 그냥 버려두기도 했던가봐, 우리 어렸을 적에 노인양반들이 그런 얘기 하면 그땐 무서워서 흘려들었지만 기억이 나.²⁸⁾

그 때 무덤이 있던 자리가 고조할아버지 묘가 있던 너머에도 꼭 찻었는데 우리나라이 서른살 무렵엔가 그 일대가 다 밭으로 일궈지면서 거기 있던 동학군들 묘가 사라진 거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묘들이 거기서부터 학수재가는 방향까지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 예전에도 벌써 많이 사라진 것 같아.²⁹⁾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에요, 시아버님께도 듣고, 집안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구미란 뒷산에 동학난 때 사람들이 많이 묻혔다고 누가누군지 몰라도 다 그때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하나 수습하는 사

26) 김경자(1941년생, 김제시 금산면 홍호리 641번지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27) 김용기(1927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36번지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28) 손영진(1929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6-3번지 거주) 2010년 2월 6일 증언

29) 최만식(1933년생, 정읍시 금봉동 내장산실버아파트 1010-505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두고 볼 수만 없어서 그렇게 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 그때 얘기는 다들 꺼내지 못하고 살았어도 그런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³⁰⁾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 동학난 때 뒷산(구미산)에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삼태 쓰러지듯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그랬어요, 또한 무덤들이 말 무덤처럼 크다 하셨어요, 그 말 무덤은 현재의 무명묘가 있는 위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없어요, 그리고 어려서 탄피가 무명묘 왼쪽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동학난이 발생할 때 마을 사람들은 이리저리 가지도 못하고 많이 죽었다 했어요.³¹⁾

금산면 구미마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고, 어려서 동네 어르신들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의 무명묘는 동학난 전쟁 때의 묘이며, 또한 큰 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구미산 솔나무 근처에서 어려서 납탄들이 발견되었고요, 칼퀴나로 긁으면 납탄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크기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이며 두께는 엄지 손가락 정도였어요.³²⁾

다들 돌아가셨지만 죄다 어려서 들은 얘기에요, 구미산에는 말 무덤처럼 큰 묘가 있었다 했어요, 또한 귀산들이 많아서 무서운 곳이라고 했지요, 이곳이 들녘이 넓고 식량이 많아서 싸움이 일어났다 했지요.³³⁾



그림 4) 구미란 농민군 묘역

30) 권영숙(1919년생,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9-37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31) 이옥선(1930년생, 김제시 금산면 옹호리 645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32) 천금정(1942년생, 금산면 구미마을 출생, 부산 사하구 당리동 222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33) 김성메(1939년생, 김제시 금산면 옹호리 667 거주) 2010년 2월 17일 증언

계적이상의 원평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구미란일대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농민군의 패배로 수많은 농민군들이 전사했으며, 그 무덤이 구미산과 학수재 일대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일대에서 납탄 등이 얼마 전까지 발견되는 등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증언 내용들은 매우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결국 이 일대에서 전투가 있었으며 농민군 무덤이 다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현재는 구미란 마을 뒷산에 농민군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분이 있는 무덤이 17개 정도 확인된다. 구미란 마을에서는 여기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고 최순식 선생이 주축이 되어 1994년부터 위령제를 지내오다가 1997년부터는 마을주민들이 동참하여 2008년까지는 마을 행사로 지내왔으며 2009년부터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있다.

이곳은 농민군 무덤이 집단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곳이며 원래의 형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농민군의 시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곳은 문화재적 가치도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가지 못하여 더 이상의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은 매



그림 5) 김덕명 생가터

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안내표지판과 표지석 등의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김덕명 생가터

김덕명은 언양김씨 세거지인 금구현 두류면 거야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금산사 입구 용계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평의 동학 접주로 활동하면서 1893년 원평집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백산대회 때에는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 김개남의 총참모로 추대되어 군량미 공급과 금구일대의 농민군 규합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황토현전투, 장성 황룡전투, 전주성 점령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집강소 통치시에는 전주, 원평, 삼례, 광주, 남원 등지에 대도소가 설치되었는데 김덕명은 원평에서 집강소의 핵심 지도자로서 많은 군수품을 거두어 들였고 탐학한 지주를 응징하며 농민의 고통을 해결해 나갔다.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원평에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였고, 김덕명은 전봉준보다 먼저 원평으로 돌아와 동학농민군을 소집하고 군량미를 모으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으나, 이들은 11월 25일 벌어진 원평전투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태인으로 퇴각하였고 이들 후의 태인전투에서도 농민군은 패퇴하였다.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뒤, 김덕명은 전봉준과 헤어져 집안 재실이 있는 안정사 절골에 은신하였으나, 1895년 1월 1일 태인 수성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군에 넘겨져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전봉준과 함께 1895년 3월 30일 처형당하였다. 그의 나이 51세로 동학농민군 지도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현재 김덕명 장군 생가터는 과자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이 김덕명 생가터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생가터에는 이곳이 생가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김덕명 생가터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김인배 생가터

김인배는 금구현 하서면 봉서동(현재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 출신으로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김개남과 남원에 진출하여 이해 6월 순천에 영호도회소를 설치하고 영호 대접주가 되어 지리산 인근의 전라도 순천, 과양과 경상도 하동, 진주 등의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1894년 8월 하동의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자 하동 접주 여장협의 구원 요청을 받은 김인배는 순천, 광양의 동학농민군 수천을 이끌

고 하동으로 진격하여 하동부성을 점령하고 도소를 설치하였다.

1894년 11월 10일에는 좌수영(여수)으로 진격하여 덕양역에서 수영군을 격파하고 종고산을 점령했으나 추운 계절이어서 지탱하지 못하고 회군하였다. 또 11월 16일,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좌수영으로 진격하여 접전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12월 6일에는 일본군과 관군이 남하함에 따라 순천에서 광양으로 밀려난 김인배와 동학농민군은 다음날인 12월 7일 민보군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김인배는 수접주 유하덕과 함께 체포되어 효수당하였다.

현재 김인배 생가터는 곡물창고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 역시 김인배생가터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생가터에는 이곳이 생가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김인배 생가터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김인배장군 추모비

6) 금구장터

금구장터는 전라감영의 수교 정석희가 효수당한 곳이다.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정석희를 전명숙(전봉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1894년 4월 18일 미

시에 금구현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효수하였다.³⁴⁾ 다음은 이와 관련된 증언이다.

홍계훈과 대적관계였던 장수한테 동학군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단칼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톱질하듯이 베어서 비참하게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전에 금구장터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동학군들을 참수해서 나무마다 상투머리를 달아 매놨다고 그래요. 아이들이나 마음 약한 여성들은 도망 다니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이젠 겨우 한 그루만 남아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른들한테 전해들은 얘가지요.³⁵⁾



그림 7) 금구장터

증언내용을 통해 보면 정석회가 효수당한 실상이 구체적으로 전해오고 있다. 금구장터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곳 역시 안내표지판과 표지석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7) 어유동가마터

어유동 가마터는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어유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탄환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가마터가 있으며, 쇳물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슬래그)가 산재해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증언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동학난 때 탄을 만들었다고, 거기 쇳똥이 많이 여기저기 있어, 김성수 씨, 이원수씨, 전철연씨, 전부명씨 그 어른들한테 열 살, 열한 살 때 들었지, 아마 그 양반들도 동학당에 가입한 사람들이었지 아마, (구미란 전투에 대해서 묻자) 어른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도 어릴 적에 관심 없이 듣다보니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많이들 거창하게 죽었다고만 들었지, 노인양반들이 예전엔 왔으면 동학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 무덤들이 많이 있다고만 들었고 누가 어떻게 묻었는가는 나는 모르지.³⁶⁾



그림 8) 어유동가마터

34) 「양호초토등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2007, 114-115쪽

35) 장을규(1935년생, 김제시 금구면 용봉리 169 거주) 2010년 2월 6일 증언

36) 김종안(1932년생,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8 거주) 2010년 2월 6일 증언

8) 농민군 전주입성 진격로 관련 유적



그림 9) 원평 팔정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으로 진격하는 이동로는 대부분 김제 특히 금구와 원평을 지나가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이동과정과 관련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가) 원평 팔정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위치한 원평팔정은 동학농민군이 전주 입성 직전에 집결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나) 독배재



그림 10) 독배재로 가는 옛길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한 독배재는 동학농민군의 진격로로 원평에서 모악산 산줄기를 타고 전주 삼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증언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니까 갑오년 때 팔정서 모였다고는 들었는데, 저그 독배재를 통해서 갔다고 하드만, 원평서 전주로 넘어 다니려면 독배로 댕겼어, 서울 갈 때도 글로 가고 그랬지, 여기 구릿골로 지나서 독배로 허서 가든가, 저그 우에(금산사 삼거리)로 허서

독배로 가든가 했다고, 옛날엔 다 글로만 땀겨어, 시방사람들은 안 걸어 다니니 잘 모르지, 그런데 걸어 다니던 시절엔 다 그랬지.³⁷⁾

다) 함성재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위치한 함성재는 전주성을 향해 진격하였던 동학농민군이 이 고개에서 함성을 질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함성재는 고함함 소리성자인데 동학군이 금구현청을 점령하기 위해서 고함을 질러 위압을 주니까 현의 관군들이 모두 사라져서 무혈점령하고 전주성으로 갔어요. 전주 쑥고개로 해서 용머리 고개로 갔다고 봐요, 독배재는 나중에 지원군을 모집했을 때 그 때 지나갔던 거예요, 추가로 갈 때는 독배재로 갔고, 전주성을 처음 점령할 때는 금구를 지나서 쑥고개를 지났다고 봐요.³⁸⁾



그림 11) 함성재

9) 종정마을과 황새마을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종정마을은 전봉준장군이 어린 시절 이 마을에 있는 서당에서 수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송씨 성을 가진 서당선생에게 한문을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이 마을 앞 원평천에서 전봉준장군이 13세 때 한시 '백구' 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때 전봉준 장군은 종정마을과 인접한 황새마을(태인현 감산면 계봉리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관봉마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가 살던 집은 유기공장에 붙어 있는 집이었다고 한다.

37) 김현식(1922년생,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612-1 거주) 2010년 2월 6일 증언

38) 장을규(1935년생, 김제시 금구면 용봉리 169 거주) 2010년 2월 6일 증언



그림 12) 종정마을



그림 13) 황새마을

10) 김덕명추모비와 추모각

김제 원평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김덕명 추모비와 추모각인 학수재이다. 김덕명 추모비는 1987년 모악향토문화연구회(회장:최순식)가 주축이 되어 영락회(노인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건립되었다. 그리고 그후 1989년 추모각(학수재)을 건립하여 매년 10월 15일 김덕명 장군을 비롯하여 원평지역 애국지사들을 위한 추모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1994년 이전인 1989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4) 김덕명장군 추모비와 추모각

4. 향후 과제

이상에서 김제의 동학농민혁명과 김제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주로 원평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물면에서는 김덕명 관련 유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사건과 인물의 집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또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근현대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민족민주운동의 시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김제 원평의 위상이 매우 높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주체들의 관심의 확대와 인식의 변화이다.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사단법인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 사업회는 출범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기념사업 단체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이러한 활발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후발주자로서 대단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원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인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에서 외연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념사업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김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제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속조치들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제시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김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시 김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주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김제시와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김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김제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늦게 출발했지만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제 동학농민혁명유적지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표지석 설치작업의 진행이다. 현재 김제지역 어디에서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안내판이나 표지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유적지가 유적지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나 표지석을 통해 사람들이 그곳이 의미 있는 장소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김제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중요하다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안내표지판과 표지석 설치 작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제지역에는 많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있다. 이들 유적지의 중요도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하루 빨리 설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제시,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나 고창군이 설치한 안내표지판이나 표지석을 참고한다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제의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인 원평집강소와 구미란전적지(농민군묘역)의 문화재지정이다. 원평집강소와 구미란전적지는 비교적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유적지이며 상당히 많은 역사적의미를 담고 있다. 원평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했던 건물로서 몇 번의 보수를 했지만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집강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집강소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고 많은 증언들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구미란전적지 역시 현재 남아있는 동학농민군의 무덤군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이들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전체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평집강소와 구미란전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들 유적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야만 보존과 관리가 용이해지고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원평집강소와 구미란전적지의 문화재지정은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강소는 실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정비하는 것이 진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미란전적지(농민군무덤)는 먼저 지표조사나 시굴 또는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곳이 농민군무덤이라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되지만 동학농

민군의 유골이나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무기 등이 현장에서 출토되어 실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해야만 한다. 문화재지정을 위해서는 김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제시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사업회는 문화재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학술연구 및 근거자료를 수집 정리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김제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전라북도의 지대한 관심을 통해 이들 유적지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지정은 먼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후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다.

넷째,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이다. 김제지역에는 많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있다. 원평집회터, 원평집강소, 구미란전적지와 농민군묘역, 김덕명생가터, 김인배생가터, 금구장터, 어유동가마터, 농민군 전주입성 진격로 관련유적, 김덕명추모비와 추모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적지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유적지 정비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향후 이들 유적지를 포괄하여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주제로 답사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주변적인 여건 즉 금산사, 수류성당, 증산교 관련유적, 정여립 관련 유적 등을 활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술연구 심화를 통한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강화이다. 김제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관련된 원평집회,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원평집강소,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구미란전투 등을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을 관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들 사건들은 아직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강화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이상균

전주대학교 교수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이상균 전주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구미란 전적지의 위치 및 역사적 배경
3. 구미란 전투의 개요
4.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
5. 구미란 전적지의 활용방안
6.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왕조의 부정부패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으며, 농민들에 의한 항쟁이었다. 정읍 고부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고창 무장기포지에서 본격적으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전주를 점령하여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민주주의의 발원을 위해, 그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제2차 봉기 이후, 공주 진격을 위한 우금치 전투에서 최신 병기를 가진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후 논산 황화대, 전주로 밀려나고, 원평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전봉준은 구미산에 진을 치고 재기의 기회를 노렸으나, 여기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퇴하고 말았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에 있어서 김제는 전봉준과 김덕명의 중심무대였으며, 구미란 전적지를 비롯하여 교조신원운동의 원평 집회, 집강소의 본부격인 대도소 등이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인식결여와 함께 학술연구 등에 있어 소외되어 온 감이 있다. 더구나 동학관련 유적지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김제시의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도하여 이미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원평의 구미란 전적지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게다가 김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미란 전투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구미란 전적지 정화사업,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학술세미나, 역사교실 등의 기반을 통하여 김제지역을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덧붙여 구미란 전적지의 위치 및 역사적 배경, 구미란 전투의 개요, 구미란 전적지의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적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구미란 전적지의 위치 및 역사적 배경

구미란 전적지는 행정구역상 김제시 금산면 원평읍 구미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원평은 김제 서부의 만경평야가 자리하는 평야지대와 동부의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접점지역에 있다. 원평장터의 옆으로는 매봉산과 모악산에서 발원하고 있는 원평천이 만경평야로 흐르고 있다. 또한 원평은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이전부터 정읍에서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적지의 위치는 구미산이 북서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며, 남동쪽으로는 원평천이 흐른다. 구미마을에는 현재 40여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미산의 서쪽으로 원평장터가 자리하고 있다.(도면1, 사진1) 원평장터는 5일장으로 지금은 한산하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인근 물산의 교역지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집회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구미마을과 원평장터 사이의 도로변에는 3·1운동시에 활약했던 이종희 장군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원평이 속하는 금산면에는 미륵신앙의 본거지인 금산사가 있으며,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최고조로 번성하였다. 또한 모악산 앞의 제비산 자락에서는 조선 중기에 기축옥사에 연루되었던 정여립이 활동하였으며, 용화동에는 강증산에 의한 중산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다. 원평천의 상류로 올라가면 천주교의 수류성당이 있으며, 전주에 선교부를 두고 개신교 전도의 선봉에 나섰던 금산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세력을 떨쳤던 동학의 대접주 김덕명의 거주지가 바로 원평의 용계리에 위치한다. 1893년 교조신원운동 당시의 집회가 원평에서 열리기도 하였으며, 1894년 5월 7일 전주화약 이후에 호남 각 군현에 설치된 집강소의 체재를 잡는데 본부격인

대도소가 있었다. 원평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덕명, 전봉준, 최경선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활동한 주 근거지가 되었다.



도면1. 동학농민혁명 관련유적지



사진1. 구미란 전적지 근경

3. 구미란 전투의 개요

1)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의 전개

1894년 6월 23일 개전한 청일전쟁의 일본 승리로 인하여 청군이 물러나고 조선의 정권은 개화세력에 돌아갔으며, 일본에 의해 내정간섭과 침략의 강도가 높아졌다. 일본군의 경북 궁 점령, 친일내각 성립 등 혼란한 국내외 정세에 전라도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던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삼남 각지에서 봉기가 시작되었다. 전봉준의 주력부대가 제1차 봉기 해산 이후 4개월만인 1894년 9월 10일에 삼례에 집결하기 시작하여 재무장 하였다. 전봉준은 4000여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10월 12일 논산에 도착하였고,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15일 합세하여 북상하였다. 김개남은 8000여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16일 전주에 도착하여 일본군의 해로를 통한 협공에 대비하며, 후방수비의 총력전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개화파 정권은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하여 34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으며, 도문순사에 신정희, 선봉장에 이규태를 임명하였다. 일본군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10월 9일, 1개 대대병력이 인천항에 도착하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방면으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1894년 10월 21일 논산을 출발한 동학농민군은 공주를 눈앞에 두고 잇따라 일본군, 관군과 전투를 벌였다. 공주성을 둘러싼 공방전은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는 10월 23일부터 전개된 이인·효포·웅치전투, 2차는 11월 8일부터 전개된 우금치 전투이다. 1차 전투는

전초전이였으며, 2차 전투에서 전면전이 이루어졌다. 2차 전투의 공방전은 11월 9일에 우금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잘 훈련된 일본의 정예병과 최신 병기의 화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학농민군은 수천명의 희생자를 내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우금치에서 밀려난 전봉준은 노성으로 후퇴하여 진열을 가다듬고, 복상한 김개남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1월 14일부터 일본군과 이규태, 이규황이 이끄는 관군의 추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논산으로 밀려난 동학농민군은 황화대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막대한 희생자를 낸채 강경으로 물러났고, 이때에는 이미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계속 후퇴하여 11월 19일에 전주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전면적인 전투는 불가능하였다. 일본군과 관군은 23일에 무혈입성하여 전주성을 장악하였고, 전주에서도 밀려난 동학농민군은 25일 원평 구미란 전투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내고 태인으로 패퇴하였다. 27일에는 태인 성황산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전투가 벌어졌으나, 와해된 조직으로 일본군과 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해산되었으며, 지도부가 없는 최후의 저항세력은 전남 서남권의 강진 병영, 장흥 석대들, 옥산리에서 전투를 지속하였으며, 해가 바뀌어 1895년 1월 24일 완주 대둔산 전투를 끝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2차 봉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1894년 9월의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의 전라도 농민군과 최시형, 손병희의 충청도 농민군이 이끈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된 봉기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대항하면서 반일항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사회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2) 구미란 전투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894년 11월 9일 우금치 전투 이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일본군과 관군의 본격적인 추격을 받았다. 15일 논산에까지 밀려난 동학농민군은 황화대 전투에서 재기의 접전을 벌였으나 제2차 봉기 이후 조직적으로 저항한 마지막 전투가 되고 말았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막대한 희생자를 내었으며, 그들의 조직과 세력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였다. 동학농민군은 계속해서 일본군과 관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11월 19일에는 2차 봉기의 시발지인 전주에까지 이르렀다. 전봉준은 전주성으로 남하하여 동학농민군을 다시 소집하였으며, 이때에 3000여명이 모여들었다.

전봉준은 22일 밤에 이들 동학농민군을 데리고 23일 원평으로 들어와 대열을 정비하였다. 동학농민군을 바짝 쫓던 일본군과 관군은 23일 동학농민군이 철수한 전주성을 쉽게 점령하였다. 곧바로 일본군과 관군은 고부방향으로 밀려난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을 쫓아 남하하여

11월 24일에 금구에 이르고, 25일 아침에 비로소 원평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미 전봉준은 대열을 정비한 동학농민군을 구미산에 집결시켜 진을 치게 하였으며, 당일 9시경에 비로소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구미란 전투에 대한 문헌자료는 희박하나『巡撫先鋒陣騰錄』¹⁾에 전투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자료에 의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영학이 1894년 11월 24일 교도병 1대와 일본군 1대를 거느리고 금구에서 하룻밤을 세우고 25일에 원평에 도착하였다. 구미산에는 동학농민군이, 원평천변의 냇가 들판에는 일본군과 관군이 천보의 거리를 두고 포를 쏘며 전투를 하였다. 포성이 들리면서 전투가 시작된 것은 9시경부터이며, 오후 4시경까지 지속되었다. 포성이 우레와 같고, 탄환이 비오듯 날아왔다. 일본군과 관군은 산위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사면으로 포위하였고, 대포의 불꽃과 연기에 의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전투는 대관 최영학이 선봉에 서서 지휘하였고, 동서로 나누어진 부대가 산위로 공격하여 동학농민군을 찌르고 목을 베어 37명을 죽였으며, 남은 무리는 도망하였다.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빼앗은 군수품은 회룡총 10정, 조총 60정, 연환 7석, 화약 5के, 자포 10좌, 칼과 창 200자루, 쌀 500석, 돈 3000냥, 면포 10동, 소 2마리, 말 11필, 연우피 10장, 호피 1령, 문서 2봉 등이며, 이 군수품은 일본 주력부대에 귀속시켰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은 사상자가 없었다.

이와 같이 구미란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또 다시 패퇴하였다. 일본군은 잘 훈련된 정예병이었고, 신병기로 무장한 상태여서 소규모의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문헌상에서는 구미란 전투에서 37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관군측의 문헌 기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상자를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전투의 전개상황이나 후대의 구전자료의 상황으로 보면 사상자의 숫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무명의 농민군 무덤이 여기저기에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봉분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4.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

1)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투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왔으며, 동학농민혁명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2』, 2007

巡撫先鋒陣騰錄은 2차 봉기시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기록이며, 양호선봉장 이규태가 순무영에 보고한 내용과 답신, 수령들이 주고 받은 공문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1894년 10월부터 1895년 2월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유적지와 관련한 보존관리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앞으로 동학과 관련된 문헌은 새롭게 찾아지는 경우가 드물고, 연구 성과의 진척도 더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는 동학 관련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전투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 전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표1) 제1차 봉기시에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관군과의 전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전투지는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전주 완산칠봉 등이 있다. 그러나 제2차 봉기시에는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의해 전투가 진행되었으며, 그것도 전국적인 규모의 봉기가 이루어졌다. 특히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전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중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전투지는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공주 우금치, 장흥 석대들이며, 이곳은 전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논산 황화산성(충남 기념물 92호)과 같이 동학농민군의 황화대 전투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채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도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완주 대둔산 전투지와 같이 기념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대둔산 관광객에게 홍보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진2)

문화재로 지정된 전투지는 전부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읍 황토현 전적지는 제1차 봉기인 1894년 4월 7일 황토재와 사시봉에서 전투를 벌인 곳이며, 현재는 기념탑과 함께 기념관, 전봉준 동상이 건립되어 있다.(사진3) 장성 황룡 전적지는 4월 23일에 전투가 벌어졌으며, 전주성에 입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적지에는 죽창을 상징한 기념탑과 장태를 사용한 전투장면이 부조되어 있다.(사진4) 우금치 전적지는 제2차 봉기인 1894년 11월 9일에 공주성 탈환을 위한 일본군·군의 연합군과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진 최대의 격전지였다. 지금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으며, 근래에 고갯길이 4차선의 터널로 개통되고 터널의 윗부분이 광장화 되어 매년 우금치 추모제례, 예술제 등의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사진5)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1894년 12월 15일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이 전적지는 2009년에 깃발을 꽂은 석대와 들판, 영회당의 사당 등이 사적 49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곳에 기념탑이 세워졌다.(사진6)

그 외의 많은 지역의 전투지는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존조치 없이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원평의 구미란 전적지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	전투지	장소	전투일	기념시설	지정별
충남	세성산 전투지	천안 성남면	1894.10.21		
	이인 전투지	공주 이인면	1894.10.23		
	효포 전투지	공주 신기동	1894.10.24		
	웅치 전투지	공주 신기동	1894.10.25		
	우금치 전적지	공주 금학동	1894.11.9	기념탑	사적 387호
	황화대 전투지	논산 중화동	1894.11.15		황화산성 (충남기념물 92호)
전북	황토현 전적지	정읍 덕천면	1894.4.7(1차)	기념탑	사적 295호
	완산칠봉 전투지	전주 완산동	1894.4.27(1차)		
	구미란 전적지	김제 금산면	1894.11.25		
	태인 전투지	정읍 태인면	1894.11.27		
	대둔산 전투지	완주 운주면	1895.1.24	전적비	
전남	황룡 전적지	장성 황룡면	1894.4.23(1차)	기념탑	사적 406호
	석대들 전적지	장흥 장흥읍	1894.12.15	기념탑	사적 498호
	옥산리 전투지	장흥 관산읍	1894.12.17		

표1. 충청,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투지



사진2. 완주 대둔산 전적비



사진3. 정읍 황토현 전적지



사진4. 장성 황룡 전적지



사진5. 우금치 전적지



사진6. 장흥 석대들 전적지

2) 구미란 전적지의 현상

구미란 전투의 문헌자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한정된 자료를 메워 줄 수 있는 증언에 의한 구전자료가 어느 정도 녹취되어 정리되었다.²⁾ 이들 자료에는 주로 마을 주민들이나 후손들의 증언이 채택되었다. 구전되어 온 이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미란 전투 후에 구미산이 동학농민군의 시체로 하얗게 덮였으며, 죽은 농민군을 전부

2) 최고원, 「원평 구미란전적지의 동학농민군 매장지 실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집단 매장지 조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0
 김제시·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2010
 김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김제명 동학농민혁명』, 2010.

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의 일부를 개들이 물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후일에 뒷산에서 밭을 일구는데 장대한 뿌가 나오기도 하였다. 말무덤처럼 큰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없어졌다. 땡매산으로 불리는 학수재 뒤에 무덤들이 있었으며, 묻지 못한 시신은 바우독골의 굴에 넣어 두기도 하였다. 구미산 일대의 밭에서는 유품이나, 납으로 만든 탄환 등을 많이 발견하였으며, 이들 납탄을 녹여서 저울추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납탄은 등근것과 세장방형의 2종류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봉준이 순창 피노리로 들어가기 전에 최경선에게 문서를 맡긴 것으로도 증언되었다.

이와 같은 구전의 여러 정황으로 보면 전사자는 문헌에 나온 37명보다는 훨씬 많은 동학농민군이 이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미란 전적지의 공식적인 지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최고원 선생 등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조사되었다.³⁾ 조사는 현장답사와 구전자료를 토대로 위성사진을 통하여 지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매장된 무덤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6개소 정도가 파악되었다.

지번상으로 보면, 금산면 용호리 산 121, 산 122, 119, 전 627-1, 금산면 원평리 180-3, 180-8번지에 해당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동학농민군의 무덤은 구미마을의 바로 윗 부분에 해당하는 용호리 산 121 임야 일대에서 현재 15기 정도가 파악되었다.

희미하게 남아 있는 봉분의 위치는 표지목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하였다.(사진7) 정식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 잡목으로 덮여진 지역에서 봉분이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해마다 무명의 동학농민군을 위한 위령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학수재가 있는 남사면의 금산면 원평리 180-3, 180-8번지 일대에도 동학농민군의 무연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호선 국도변에 위치한 이곳은 현재 뿔나무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며, 동학농민군의 무덤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뿔나무밭에 아래의 남사면에서 3, 4기 정도의 봉분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사진8) 구미란 전적지는 지역 여건상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이나 경작 등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3) 최고원, '원형 구미란전적지의 동학농민군 매장지 실태',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집단 매장지 조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0



사진7. 동학농민군의 무덤



사진8. 동학농민군의 무덤

3)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전투지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구미란 전적지를 포함하여 원평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재조명과 아울러 전적지의 학술조사, 원평 동학농민혁명 유적의 가치와 정신적 위상 제고 등 제반 사항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구미란 전적지, 원평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관변기록으로 『兩湖招討謄錄』, 『兩湖電記』, 『東匪討錄』, 『巡撫先鋒陣謄錄』, 『先鋒陣日記』,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巡撫使呈報牒』 등이 있고, 유생측 기록은 『梧下紀聞』, 『續陰晴史』, 『嶺上日記』 등이 있다. 동학측 기록으로는 『東學史』, 『侍天教宗釋史』, 『海月神師』, 『均菴丈林東豪氏略歷』, 『禹東菴行文集』 등이 있으며, 일본측 기록은 『韓國東學黨蜂起一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 존재하고 있다.⁴⁾ 따라서 이들 문헌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헌자료는 이제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현장조사에 의존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구미란 전적지는 구미산 일대의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후퇴하면서 일시적으로 전투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는 동학농민군의 무연묘가 6개소 정도에서 확인되었고, 동학농민군이 사용하였던 납탄을 묻은 장소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미

4) 김제시·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2010.
김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김제동학농민혁명사료집』, 2010.

란 전적지의 기초조사나 보존관리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그러나 유적지는 지금 있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적지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유적의 입지와 경관, 현장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⁵⁾

따라서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은 지금 있는 그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전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차원에서의 시설개발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란 전적지는 그나마 주변의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어서 정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은 김제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유적의 공원화를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 이를테면 학수재부터 무명 묘역이 있는 지역까지 공원화와 아울러 산책로를 만들어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확보된 공간에 전시관 혹은 홍보관의 건립이나 주차장 조성, 관람객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구미란 전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원으로 꾸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적지는 교통의 요지에 있으므로 전적지까지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금산사 관광객의 유입책과 아울러 국도 1호선변 통과 차량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전적지의 안내판, 도로상의 유도표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건축이나 조경업자에게 일임하지 않고 반드시 문화재위원이나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설계가 실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편리성에 임의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원평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이 있다. 이 유적지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정신적인 측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현재 원평에는 구미란 전적지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된 원평 집강소, 학수재, 김덕명 생가터, 김인배 생가터, 원평장터 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정읍과 고창 중심이라는 인식을 깨고, 김제의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의 위상을 높여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 가치는 김제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의식 고취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김제 시민에게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활용을 하여야 한다.

5)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또한 구미란 전적지를 포함한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존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적지의 관리 대상은 주로 지정문화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각 지방관청에서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관청의 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 관련 조례제정과 법령을 통하여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소유자, 관리자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전문성이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훼손이 지속되거나 방치된 경우가 많다.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는 전문가 자문위원제도, 연고지별 문화재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⁶⁾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의 문제이다. 유적지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밀리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적지를 보존 정비하고 관리하는 예산은 대부분 지정문화재에 집중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나 보존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은 적다. 이러한 현상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같이 지역의 특징적인 유적지가 방치되거나 훼손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경우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이대로 유적지의 훼손이 진행된다면 역사문화 자원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문화재 지정의 방향성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약한 김제시의 경우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는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낮고, 문화재로서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의 지정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김제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전라북도 기념물 정도의 문화재 지정은 가능하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의 경우에는, 1894년 12월 15일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며, 전라남도도 장흥군의 다각적인 노력에 의하여 2009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예가 있다.

6) 이상균,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과 보존관리」, 『전북사학』, 38집, 2011.

인접한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지정문화재는 이전에 고부에 속해 있던 백산성지(사적 409호)를 포함하여, 만석보터(도기념물 33호), 말목장터(도기념물 110호), 전봉준고택(사적 293호), 황토현 전적지(사적 295호), 고부 관아터(도기념물 122호) 등 6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화재 지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요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선별하여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구미란 전적지를 비롯하여 원평 집강소 등은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지정이 가능한 유적지이다. 이중에서도 먼저 구미란 전적지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부각시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전적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유적지는 학술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방관청의 관심도에 의해서 문화재의 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지정은 김제시의 의지도 중요하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화재 지정의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는 보존이나 관리에 있어서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미란 전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였을 경우, 전적지와 구미마을이 너무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규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구미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관리를 해야 그나마 전적지와 그 주변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업에 큰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불편은 아니다. 전적지의 주변경관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업 시설의 건축과 배치 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의 보호와 구미마을의 자연경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외부인의 관심과 함께 방문객이 증가하고, 관광사업과 연결된다면 구미마을을 포함한 원평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5. 구미란 전적지의 활용방안

구미란 전적지의 활용은 현재 김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미란 전투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원평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구미란 전적지 묘지를 가꾸는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역사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구미란 전적지를 포함하여 김제의 동학농

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문화유산해설이나 학생들의 견학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일임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아울러 여기에 관련되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1차적으로 김제 관내의 초·중·고 생들의 체험학습지로 견학할 수 있도록 활용하며, 나아가서 수학여행 연계코스로 활용한다면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훌륭한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김제를 포함한 전북지역, 나아가서는 한국민의 정체성과 역사 의식 고취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교과서나 문헌에만 의존하는 역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적지의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성을 겸비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배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내 책자나 각 대상에 맞는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자료는 학생과 일반 관광객에 맞는 수준으로 김제의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진과 지도를 첨부하여 제작하면 좋을 듯하다. 자료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의 기초적인 내용과 아울러 김제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유적지 소개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특히 원평 지역주민들의 교육에도 힘을 써야 하며,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면 구미란 전적지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달리할 것이며, 유적지의 보존문제나 향후 원평의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자료는 김제시의 관광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의 홍보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유적지의 활용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의 활성화에도 필요하다.

근래에 들어서는 유적지에 대해 지방관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많다.

유적지의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주제별 관광루트 개발, 이벤트 행사, 문화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역사유적이거나 관광명소, 지평선 축제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⁷⁾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학술제나 예술제가 개최되면 좋을 듯하다. 실례로 가까운 정읍의 경우는 매년 5월에 황토현 전승기념식, 민속 소

7) 이상균,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과 보존관리」, 『전북사학』, 38집, 2011.

싸움대회, 사발통문 만들기, 사진전, 미술대전, 영상제, 농악경연대회, 황도현 수영캠프 등 다양한 행사의 동학축제를 열고 있어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공주의 우금치 전적지는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터널로 조성되었으며, 터널의 윗부분 공간을 활용하여 추모 제례, 거리행진, 연극공연, 미술품 전시 등 예술제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김제도 원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종합적인 축제나 행사가 계획되면 좋을 듯하다.

구미란 전적지는 원평의 집장소, 김덕명 생가, 원평장터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물론이고, 주변의 종교자원인 불교의 금산사, 귀신사, 천주교의 수류성당, 개신교의 금산교회, 중산교, 대순진리교 등의 신흥종교, 정여립 관련 유적지 등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출간된 보고서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⁸⁾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들레길에 대한 코스개발 등 일부의 사업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연관되는 원평장터를 활성화시켜, 시골장의 전국화가 이루어지게 하면 좋을 듯하다. 한 예로 전남 장흥읍의 토요시장은 장흥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장흥은 전남의 외곽에 있어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원평장은 국토 1호선변에 위치하고, 금산사리는 큰 사찰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유리하다. 그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토요장터를 개설하고, 김제시의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원평 시골장의 전국화를 위한 주변 상인과의 협조 체계, 이벤트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장터 주변의 정비와 주차장을 비롯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의 자긍심과 애향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맺음말

구미란 전투는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인 1894년 11월 25일 원평의 구미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 사이에 전개되었다. 원평천을 사이에 두고 시작된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많은 사상자와 함께 군수품을 빼앗기고 태인으로 밀려났다.

8) 김제시·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2010.

이때에 희생된 사상자의 일부가 지금도 구미산 일대에 묻혀있으며, 김제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위령제가 행해지고 있다.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전적지에 대한 문헌자료와 더불어 고고학적 조사에 의한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조명되어야 한다.

구미산 지역에는 동학농민군의 집단묘가 6개소 정도에서 확인되었고, 동학농민군이 사용하였던 납탄을 묻은 장소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구미란 전적지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되는 원평 집강소, 학수재, 김덕명 생가터, 김인배 생가터, 원평장터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측면의 위상을 높여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은 김제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홍보관 건립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약한 김제시의 경우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문화재의 지정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전적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김제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전라북도기념물 정도의 문화재 지정은 가능하다.

구미란 전적지의 활용은 현재 김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구미란 전적지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현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적지의 활용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구미란 전적지는 원평의 집강소, 김덕명 생가, 원평장터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물론이고, 주변의 금산사, 귀신사, 수류성당, 금산교회, 증산교, 대순진리교 등의 신흥종교, 정여립 관련 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학술제나 예술제가 개최되어야 하고, 원평장터와 구미란 전적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면 좋을 듯하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구미란 전투의 개요,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미란 전적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에 대한 가치조명과 함께 보존관리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김제시는 구미란 전적지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여기에 관련되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창군,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008.
- 고창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정비 기본계획』, 2007.
- 김제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2010.
- 김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김제땅 동학농민혁명』, 2010.
- 김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김제동학농민혁명사료집』, 2010.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동남풍, 1994.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신서, 1995.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집단매장지 조사』, 2010.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2』, 2007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006.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 이상균 외,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정읍시·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이상균,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 기포의 의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 이상균,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과 보존관리」, 『전북사학』, 38집, 2011.
- 원광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2004.
- 장호수, 「발굴유적의 보존과 정비」, 『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 정문교, 『문화재 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최기성,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서경문화사, 2006.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백제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2002.
- 한상우,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고문화』, 65집, 2005.
-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



송만오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

송만오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1. 들어가는 말
2. 원평 집강소의 설치와 그에 대한 기억들
3.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
 - 1) 보존
 - 2) 활용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김제 원평 집강소¹⁾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본 글이다. 집강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들이 조선후기의 부패한 모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염원을 실천에 옮긴 聖스러운 장소이다. 저들의 값진 희생덕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이곳을 동학의 聖地로 여겨야 하며 또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을 찾게 함으로써 동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후손된 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집강소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그간 우리의 노력은 결코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동학혁명에 대하여 기울인 관심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고 또 官의 지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평

1) 원평 집강소의 성격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명칭도 다르다. 대도소라는 말도 있고 혹은 김덕명 도소라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원평 집강소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

집강소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원평 집강소가 우리들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소로 쓰인 건물 중 유일하게 그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원평 집강소 건물은 동학 농민군의 의로운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동록개라는 이름의 白丁이 농민군에게 喜捨한²⁾ 다시 말해서 동학 혁명이 당시 하층민으로부터 얼마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동학의 성지를 그저 지금처럼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원평 집강소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여야 동학의 혁명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또 그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말하고자 한다. 다만 논리 전개 of 편의를 위해 원평에서의 집강소 설치 과정과 원평 집강소로 우리에게 알려진 건물이 과연 동학혁명 때 실제 집강소로 쓰인 곳인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걱정이 있다. 필자가 평소 동학에 깊은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어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동학혁명과 관련한 유적의 보존이나 유적의 관광자원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필자의 능력이 그런 것을 취급할만한 수준이 전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가 본고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거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擇其不善者而改之”라는 孔子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면서 필자의 無知를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

2. 원평 집강소의 설치와 그에 대한 기억들

원평 집강소가 설치된 과정에 대해서는 신순철 이진영의 『실록동학농민혁명사』(도서출판 서경문화사, 1998), pp.97~123에 수록된 “집강소, 무르익는 혁명의 희망”이라는 글을 통하여 그 대강을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원평 집강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동록개가 매입하여 희사하였다는 설과 자신이 살던 집인데 이를 주었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있다.

전라도 내에 집강소가 설치된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을 점령사건³⁾ 이후였다. 국내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자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이 전봉준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전주성에서 회담을 가졌다. 1894년 7월 6일의 일이었다.

이 회담에서 전봉준과 김학진은 官民相和의 원칙을 세우고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 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 잡는 데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김학진은 농민군의 지배력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治安權과 自治權을 전봉준에게 위임함으로써 전라도 내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고, 전봉준은 집강소를 설치함으로써 관과 농민군의 협력하여 道内の 치안질서를 바로 잡고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후 전봉준은 전주성 안에 全羅左右道 大都所를 마련하고 송희옥을 都執綱으로 임명하는 한편 전라도 각 郡縣에 通文을 보내어 군현 단위로 집강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라도에 설치된 집강소는 그 설치 및 운영의 모습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지방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농민군이 막강한 세력을 바탕으로 집강소를 장악하고 치안 기능을 넘어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한 지역, 둘째는 농민군의 세력이 우세하지만 지배권력과 협조관계에 있던 지역, 셋째는 농민군의 세력이 미약하여 집강소가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곧 폐지되거나 보수 지배층이 집강소를 장악하고 치안기능을 담당한 지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⁴⁾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의 집강소 가운데 원평 집강소는 첫 번째, 즉 농민군이 집강소를 장악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원평 집강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 데는 원평이 전봉준의 직접적인 통솔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고 또 교조신원 운동 이후 최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도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원평에서 집강소가 들어선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 통 한가운데였다. 그 집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⁵⁾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집의 예전의 모습 혹은 이 집에 담긴 예

3) 일본군의 궁궐 점령 사건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한 후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자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개척하라고 협박하던 끝에 비상수단으로 궁궐을 점령한 일을 말한다. 일본군은 이 사건 이후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갑오개혁 정권을 세우고 내정을 간섭하는 한편 아산만에 있던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며 노골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냈다.

4) 집강소가 전라도 전역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보수층에 의하여 조직된 민보군의 활동이 강한 지역에는 집강소가 들어서지 못하였는데 운봉과 남원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5) 행정 주소로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번지이다.

7) 지붕이 지금은 기와이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초가였다. 원불교 교인들이 초가로 된 이 집을 뒷 배경으로 삼아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전의 추억들을 기억해 주고 있다.⁶⁾ 전면 4칸 집으로, 지금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일제 식민시대 초기에는 面事務所로 쓰이다가 1930년에 이르러 원불교 교당이 이곳에 들어섰다.⁷⁾ 지난 2010년 필자는 직접 이 건물의 천장을 뜯고 상량문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분명 이 집이 지어진 시기를 임오년, 즉 고종 19년(1882)으로 적고 있었다. 이 건물이 집강소로 쓰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⁸⁾

8) 물론 위 집이 집강소였다는 점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 많은 자료들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구전이나 증언 보다는 한 줄의 문헌적 근거가 더 큰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6) 원평 집강소에 대한 일부 원평 주민들의 기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증언의 주요 내용	증언자
지금은 그 집이 보잘 것 없게 생겼는데 박정희 때만해도 구식풍이 나면서 운치 있던 집이었다고, 그 앞이 전부 전답이었어. 그 전답 주인이 우리 작은아버지였어. 작은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집에서 도꾼들이 모여서 經도 읽고 그랬다고 하드만. 우리 작은아버지가 학자라서 시원찮은 사람들이 한말이 아닌 게 내가 잘 기억하지. 도꾼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랬다고 그래. 1965년엔가. 초가지붕에서 기와로 바꾼 걸 기억해	손영진(1926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6-1)의 기억
돌아가신 최순식 선생이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묻고 땀했는데 원평장에 살던 김은경씨 부친이 그런 말을 했어. 백정 등록개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백정을 양반만 들어준다고 하니가 동학에 감탄해서 그 집을 바쳤다고 해. 한일합방 후 최초의 면사무소가 그 집이었어.	조영옥(1942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6)의 기억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천도교 교령 손병희씨가 호남을 순시할 때 거기 왔었다고 그래. 그 집에 손병희가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	최만식(1933년생, 정읍시 금봉동 내장산 실버아파트 101동 505호)
그 건물을 멀리 당하는 세상에 한이 맺힌 백정이 증조부님께 바쳤다고 들었어요. 그 건물에서 증조부님이 활동을 하셨던가 봐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김석태(1944년생,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49-19)
나는 일제 해방이 될 즈음 이 터로 이사 왔었어. 그 당시 초가였고 이후에 이 집의 지붕, 마루, 문 등을 고쳤지. 어른들 말씀이 고기장사를 하던 백정 등록개의 소유였고 고기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당시 원평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이었는데, 나중에 이곳에서 전봉준 장군이 정치를 하였다하더라고. 그리고 니 집을 고치면서 작은 방 중앙에 상량문을 보았어. 나는 글을 잘 몰라서 읽을 수는 없고 어른들 말씀이 수백 년 된 집이다 하더라고.	조영옥(1942년생,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6)의 기억
내가 어렸을 때 그 당시 어르신들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 들은 얘기로 이 집에서 동학군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고 숙고로도 활용했다 하시더라고. 白丁 등록개가 부자였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동학군에게 기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김성평(1956년생,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24)

3.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

그러면 원평 집강소 건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고 또 그들의 그러한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바도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이 합리적이며 또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書自書 我自我”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학 농민군의 내세웠던 정신이다. 물론 이 점이 굳이 원평 집강소에 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릇 동학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는 지자체들에서 벌이는 모든 행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사항이다. 지나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점을 무시하는 박물관이나 유적지 혹은 각종 행사 등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학과 관련한 행사를 거행한다든가 혹은 동학과 관련한 유적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동학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동학 관련 학술회의에서 市長이나 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각종 기관장들이 貴賓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동학과 관련한 행사에서 위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절대로 귀빈이 아니다.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농민군의 후손이 귀빈대접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농민군들이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 무엇인가.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자고 모이는 회의에서 그저 상위 계급에 있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귀빈 대접을 받고 농민군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우러러보게 보게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완전한 계급이 없는 사회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어도 동학과 관련한 행사에서만은 농민군이 자신들의 목숨과 바꾼 정신만은 지키려고 노력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동학과 관련한 유적지의 보존 또는 관리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으로 예로는 순창의 피노리를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었던, 적어도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아픈 기억의 현장이 있다. 십 수 년 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일종의 성역화 사업을 시도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 장소를 보면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장면이 있다. 담을 넘어 도망가고 있는 전봉준을 김정천이 손으로 가리키자 몽둥이를 든 두 명의 백성이 전봉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하여 위 모습을 본 후 참으로 당황스럽기가 그지없었다. 너무도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물론 전봉준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닌 인간이다. 누군가 잡으러 오면 담을 넘어 도망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그 모습을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모습을 본 어린 학생들은 과연 전봉준을 어떤 인물로 인식하게 될까. 그리고 몽둥이를 두 사람의 백성은 또 무엇인가. 같은 민족끼리 그 무슨 해괴한 일인가. 더욱이 당시 전봉준은 백성들로부터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가. 적어도 자신들이 정당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까지 여겨졌다고 보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분이 도망가고자 했다면 백성의 입장에서야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또 정당한 일이거늘 마치 전봉준과 백성 사이가 원수처럼 묘사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함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사진1. 전북 순창 피노리 1



사진2. 전북 순창 피노리 2

다음으로는 현실성을 반드시 고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먼 미래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모른 바가 아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일 때의 이야기이다.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제안들은 그저 虛學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동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창이나 정읍 혹은 김제 등 우리 전라북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을 가보면 동학을 내세우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데 간혹은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 눈에 거스를 때가 있다. 호남선 내 어느 휴게소에 걸린 다음 간판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진3. 호남고속도로 정음휴게소

어쨌든 동학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들이 추진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에는 잘못되거나 혹은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인데 필자가 이 부분을 조금은 장황하게 언급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적어도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원평에서의 동학 관련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동학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또는 이치에 어울리지 않은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평 집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순서상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활용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1) 보존

원평 집강소의 보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집강소 건물을 김제시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집강소 건물과 집강소가 있는 땅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현재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김제시나 또는 동학 단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건물 혹은 장소를 두고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난센스다. 만약 집과 땅의 주인이 전혀 다

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오늘 꺼내는 이야기는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필자가 처한 상황으로서는 달리 생각할 방법은 없는 듯하다. 그 땅은 김제시에서 소신대로 다룰 수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소유주로부터의 기증도 생각해 봄직하다.

아니면 소유자는 그대로 놔둔 채 그 이용 등에 관한 권리만 위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바라건대 혹여 김제시에서 집강소 건물의 사용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집강소와 관련한 자료들을 간단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강소를 보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점은 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냐 마느냐의 여부이다. 물론 문화재 등록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내용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런 점을 무시하고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고 또 문화재 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의 건물에 대해 어떤 인위적인 손질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문화재 등록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집강소 건물은 지극히 불안한 상태이다. 필자는 지난 2010년에 이 건물의 내부를 볼 기회가 있었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하여 上樑文도 직접 확인하여 이 집이 壬午年, 그러니까 고종 19년(1882)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한 바 있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여기 저기 손을 볼 곳이 너무도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대로 놔두다가는 머지않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한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문화재 등록을 마치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집을 보수와 수리를 마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매입이나 기증 행위가 있기 전이라도 이 집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비가 샌다는 느낌도 받았고 또 폭설이 내린다면 기와가 주저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그 땅을 기증받느냐 혹은 매입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주의 허락만 받으면 얼마든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집강소 건물에 대해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목은 이 집이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소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는 일이다. 한 곳이 아니라 적어도 두 서너 곳은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안내판을 세우는 데 그리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만 바라건대 제발 안내판의 문안에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에 세워진 안내판을 보면 “위패”라고 해야 할 것을 “위 폐”라고 적은 데가 있는 데, 그 잘못을 알고 있어도 5년이 넘도록 수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안내문을 다시 작성하고 작성된 안내판을 다시 거는 데 예산이 든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안내문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집강소 주변 지역의 확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이다.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집강소를 찾은 사람들을 한 데 모을 수도 있고 또 집강소에서 활약하던 농민군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전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금 집강소 옆으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는데 사용허가를 받는 방안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완 시설을 강화하여 그저 아무라도 함부로 출입하는 것도 막을 필요도 있다. 물론 원평 지역에 있으므로 누군가 몰래 들어가 불안한 행동을 취할 리는 없다. 화재의 위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장담할 수만은 없다.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일도 현 소유자와 긴밀한 상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집강소 외벽에 집강소의 활동과 관련한 벽화를 조성했으면 한다. 지금은 물론 벽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좁은 곳에 우선 벽화를 조성하고 추후 집강소 건물의 사용이 보다 용이해진다면 벽화를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하건대 벽화나 혹은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리는 그림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농민군이 외친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못된 양반을, 그리고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사회를 개혁하자는 농민군의 바람을 잘 답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 활용

집강소의 활용 문제를 생각해보는 데도 역시 반드시 유념할 점이 있다. 다시 한 번 또 강조하지만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동학의 혁명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학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학농민혁명에서 그렇게 바랐던 구성원 모두가 다 인간답게 대접을 받으며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집강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다만 집강소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유적이다 보니 설명문의 내용 역시 집강소를 벗어나 동학 전반에 걸치는 대목도 있을 것이다.

첫째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집강소를 비롯한 동학 성지의 답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특히 사무관이나 혹은 각종 고시 등 이른바 고위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권위를 내세우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 밀착되어 살아야 하는 그리고 민생의 삶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각종 의원들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단 다른 시도의 경우는 우리 김제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일은 먼저 김제시에서 시작한 후 전라북도 등 좀 더 넓게 확산시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남아 있는 권위 의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완장을 차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알량한 자리 하나 가지게 되면 온갖 대접이라는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하고 있다.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다. 분명 문제가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라고 외치면서, 하층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농민들이 봉기한 지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이 이른바 官의 사회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혹은 고위직으로 진출하게 된 자들 또는 그 밖의 높은 계층에 놓인 자들에게 집강소를 찾게 함으로써 한 세기 전 농민군이 원하였던 바가 무엇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그들 공무원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새겨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으면 한다. 동학이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겠다는 우리 선조들의 깨달음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동학을 주제로 삼은 달력을 제작해 보았으면 한다. 집강소를 위시하여 전봉준 사진, 김덕명 유적, 구미란 유적 등 동 김제시에 산재한 동학관련 유적지 수십 개를 선정 한 후, 각 유적지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준으로 각 월별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확보로 담는 것이다. 물론 동학 관련 유적을 소개하는 사진이 아름답거나 그래서 어떤 미적인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마음과 동학의 이념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유적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春, 元, 生, 東의 곳을 택해 주기 바란다. 夏秋冬, 亨利貞, 老病死는 동학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학 달력이 히트를 치고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잘해야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 그것도 김제나 정읍 또는 순창, 고창, 공주 등 이른바 동학의 성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네 시작은 미미 하였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도 있듯이 우선은 그 정도로 만족하고 앞날을 기대해

보자. 정읍 황토현이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혹은 기타 동학 관련 사무실에는 그 어떤 달력보다도 동학의 이미지를 담은 달력이 어울리리라 본다.

동학 달력도 그러한 성격이겠지만 집강소를 비롯하여 동학과 관련한 문화 상품의 개발에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전봉준 카드, 전봉준 칼, 동학 수건 등 1차원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을 겨냥한 다양한 어플, 또는 온라인 게임 등 얼마든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명 패치 프로그램에서 전봉준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동학농민군이 꿈 꾸 세상을 건설하는 과정을 주제로 한 게임은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게임 모르면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면 좋겠다.⁹⁾ 이 게임 개발에는 김제시나 동학재단의 후원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후원을 하려면 역시 어매이징하게 할 것을 원한다. 개발비도 안 나오는, 겨우 생색만 내는 그런 장난 같은 보조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개발한 게임이 선택되면 회사를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동학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봉준이 누구고 집강소가 어떤 곳이며 동학농민군이 어떤 세상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는 위에서 언급한 수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다. 이 수건 역시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동학에 대한 관심도가 성숙될 때까지 말이다. 그 전까지는 역시 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제시 관내에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상가에서 동학 수건을 만들겠다면 일정 비용을 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전봉준 등 동학지도자 얼굴을 수건에 담은 무식한 행동은 없도록 막아야 한다. 폐정 개혁안 같은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는 집강소를 주제로 한 문학 대회를 열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삼행시 짓기나 백일장 대회를 김제 지평선 축제 때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거국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집강소나 동학을 주제로 삼은 문학작품을, 그것도 김제를 무대로 삼은 문학작품을 유도하지는 것이다.

9) 무릇 문화 상품이란 왕따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 모르면 왕따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유희왕 카드, 마법 천자문, 메이플 스토리 카드, 스타크래프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당연히 상도 제정해야 한다. 듬직한 상금을 보장된다면 기대 이상의 수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공원 조성도 필요하다. 집강소나 혹은 구미란 전적지의 주변 지역 등,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나 찾기 오기가 간편한 조그마한 장소에 동학 지도자들의 브론즈상과 여타의 동학 관련 이미지의 형상들을 마련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간이 휴게소를 마련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몸의 휴식과 마음의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전봉준상의 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동학이나 혹은 동학 지도자의 이름을 앞세운 상은 없는 것 같다. 동학에 대한 학계나 각 지자체의 관심 정도를 감안한다면 조금은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집강소 관련 학술회의를 계기 삼아 김제시나 동학혁명기념재단 혹은 여타의 동학관련 단체 서로가 힘을 합하여 동학과 관련한 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정해 보았으면 하는 어떨까 한다.

상(賞)의 이름은 어떻든 좋다. 전봉준상도 좋고 김개남상이나 혹은 손화중상 또는 김덕명상도 좋다. 어느 이름을 내 걸건 그 의미는 같기 때문이다.

혹여 전봉준은 총대장이고 손화중 등은 휘하 장군이므로 누구 이름을 따느냐에 따라 상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겠지만, 적어도 동학에서 만큼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으므로 다 동일한 선산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동학의 상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인가. 말이 필요 없다. 동학의 사상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동학의 사상을 잘 실천한 사람인가.

역시 말이 필요 없다. 자기의 권위와 특권을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하여 포기하거나 혹은 고통 받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로 뛰어 든 용기 있는 사람이면 된다. 사실 최제우나 전봉준 혹은 여타의 동학 사상가나 혹은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또는 한국의 개화를 위하여 노력한 자들이거나 또는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이 위대한 까닭은 그들이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부조리와 모순을 만나도 용기가 없거나 혹은 내 일이 아니더라는 소극적인 생각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비해 저들은 직접 그 현장으로 뛰어 들면 그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오늘날은 어떤가. 오히려 그런 잘못을 보아도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시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해괴한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소외된 자들도 줄어들고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학의 정신이다.

동학상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동학상의 상금은 문자 그대로 정말 어마이징해야 한다.

기 백 만원 주면 오히려 전봉준이나 동학을 가볍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사회 변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만큼 보상의 성격도 있어야 하고 또 동학사상의 위대함이나 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감안한다면 최소 큰 것 한 장 정도는 되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 그래봐야 그 돈은 다시 사회로 환원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이 많아야 상의 비중도 커지고 동학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원평 집강소가 설치된 과정과 함께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해야 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또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는데 과연 필자의 견해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동학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낸 것이냐 하는 등의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필자도 자신이 없다. 본고 첫 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가 동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어서 동학이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도 필자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잡소리나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저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이 있으리라 시대해 본다.

본고를 마무리 할 때는 본문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또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다만 한가지만을 부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누차 강조하였지만 동학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동학의 이념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꿈꾸었던 혁명 정신만은 결코 잊지말아달라는 점이다. 이점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주었으면 한다.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

1. '또 다른 역사' 와 원평 동학농민혁명
2. 원평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본관점 : 맥락의 역사, 역사의 맥락
3.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3대 요소와 의미
4. 원평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과 과제
5. 마무리 : 원평의 민중성과 역동성

1. '또 다른 역사' 와 원평 동학농민혁명

역사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문제의 드라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한글창제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추상적으로 인식해왔는가를 깨닫는다. 물론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시대가 남긴 '역사의 기호'¹⁾를 통해서 그 사건(한글창제)가 갖는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글창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비록 상상과 허구의 드라마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20 세기) 역사를 의미있게 결산하기 위한 관건은 역사의 기호들을 우리의 성찰적 인식의 그물로 죄다 포착해 내고 그 의미를 적절히 해독해 내느냐의 여부이다" 라는 김영범(1998: 161)의 글에서 인용했다. 집합기억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 김영범(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지승중 외 지음,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물론 기록이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기억도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기억이 만일 공식역사(official history)와 사뭇 내용이 다르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역사(alternative history)의 소중한 소재 또는 원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범, 1998 : 163)

‘또 다른 역사(alternative history)’는 단지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공간이야말로 ‘또 다른 역사’를 이해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 장소나 공간에 기념비나 기념물을 세운다. 기록과 기억 그리고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기록(자료)과 기억(증언), 공간(기념물)이라는 가시적인 사료들 외에 이른바 ‘무의식적인 역사’도 있다. ‘무의식적인 역사’란 사회적인 것의 무의식적 형태들의 역사라고 부른다. 페르낭 브로델은 “사건의 빛, 그것의 섬광의 이면에서 펼쳐진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무의식적인 사회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낭 브로델, 1982 : 277)²⁾

무의식적인 역사는 일종의 이면(裏面)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면이란 단순히 기록되지 않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야사(野史)가 아니라 사건과 사실의 저변에 있는 구조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한글창제를 둘러싸고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시대정신에서 한글창제가 갖는 치열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제 120여년이 경과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기념사업 역시 사실과 증언의 시대를 넘어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김제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맥락의 역사’는 매우 중요할뿐더러 필수적이다. 김제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하나지만, 기록과 구술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고 있고, 특히 전봉준과 관련해서 추론하고 증명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장소다.

원평은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의 첫 출발점이었던 원평취회의 현장이며,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직전 홍계훈의 경군이 보낸 사자(使者)의 목을 베고 조정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혁명의 의지를 보인 곳이다. 또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후 우금치에서 폐전한 후 최후의

2) 무의식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했다. Fernand Braudel(1969), ‘역사와 사회과학: 장기지속’, 신영하 편(이정옥 역) 『사회사와 사회학』(1982), 창작과 비평사

전투를 치른 곳도 원평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명이지만 아직 충분하게 연구되지 못한 김덕명장군의 근거가 이곳 원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평에 흐르는 이 기묘한 혁명의 줄거리는 아직 성의 있게 정리되지 못했고 그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일에도 모자람이 많다. 이 글은 원평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원평이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할 것인가를 정리하기 위해 씌여졌다.

2. 원평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본관점

: 맥락의 역사, 역사의 맥락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와 유적지들에는 기념비와 기념탑이 세워지고 기념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념사업이 아주 만족스럽고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역사 속에 묻혀있다고 보는 단계는 아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사건으로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혁명의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이름과 경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며 보상하는 사업들이 남아있다. 또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커다란 과제다.

이와 함께 이제는 공식화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가장 적절한 방식과 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동안 크게 세 단계를 거쳐왔다.

첫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이 민란으로 규정되었던 시기다. 이 시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과 현장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기억과 기념의 단계였다.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전봉준 고택에서 5백여미터 떨어진 소나무숲에 천안 전씨 문중이 세운 전봉준장군 단비가 대표적인 유적이다.

두번째 단계는 동학농민혁명이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이후 1백주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기념사업의 시기다. 이 시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세력이나 주요 현장에서 각기 혁명을 기념하고 의미를 조명하는 사업이 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이루어진 기념사업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혁명을 기념하는 방식이 지극히 유교적이고 권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지나면서 혁명사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기념사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시작되었다. 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조성된 기념물이나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을 근대 민중혁명으로 보는 관점과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전통적인 기념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가운데 가장 잘된 조형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삼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혼재를 잘 보여준다. 삼례 역사광장을 답사한 박준성은 삼례동학농민혁명봉기비는 거대한 남근석을 연상케하고, 4각 기둥의 부조물은 관람객들에게 공부의 부담을 주며, '추념의 장' 조형물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울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성, 2006) 또 비교적 최근에 기념시설이 집중적으로 건립된 충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역시 농민혁명의 뜻을 기리는 수평적 구성이 아닌 좌우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상이 주를 이루고, 농민혁명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양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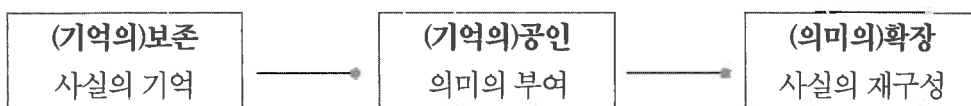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기념물에 대한 외형적 분석이나 대안제시 역시 또 다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 각 주체별로 또는 지역별로 너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념사업의 방식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1994년 1백주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국가적으로나 민간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쉽게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도 기념사업을 담보시키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이제 새로운 단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기념사업과 함께 사회사 혹은 구조사적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맥락을 이해하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보존과 공인(정당화)의 단계를 거쳐왔다면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차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단계(차원)

앞서 지적했듯이 기억의 보존이라는 단계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데 온 힘을 쏟는 시기다.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인물을 기리는 사업들이 사실의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공인되면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 주체들에 의해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기억의 공인’ 단계다. 국가적으로 기념식이 치러지고 기념행사 등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의식화가 이뤄지는 단계다. ‘의미의 확장’ 단계는 한계에 부딪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단계가 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공식화된 연대기적 기록을 벗어나 그 이면에 있는 구조에 주목해야 하는 단계가 지금의 시기다. 의미의 확장단계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더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확장하고 사실을 재해석하는 단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적 이해 즉 구조사적 관점이다. 그동안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역사분석에서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분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조사다. 위르겐 코카는 구조사적 방법은 “개별적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관계’와 ‘상황’, 초개인적인 발전과 과정이 전면에 부각된다. 이 방식은 개인적 동기, 결단, 행동 자체보다는 오히려 역사에서의 인간적 활동의 조건과 무대 및 가능성에 눈을 돌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르겐 코카, 1975 : 349)

구조사의 관점에서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특히 원평지역에 대한 연구와 기념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많은 수수께끼를 갖고 있는 지역이지만 역사적 사실과 증언에서 배제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을 구조사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원평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숨은 지도자이자 전봉준의 멘토로 해석되어야 하는 김덕명, 동학농민혁명 당시 대중적 선전과 선동의 첫 번째 장이었던 원평장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배를 예견하면서도 처절하게 맞서 싸워야했던 농민군의 마지막 전투지인 원평 구미란이 그것이다.

3.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3대 요소와 의미

1) 용계 김덕명장군³⁾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덕명은 금구대접주로서 원평에 자리를 잡은 동학의 대접주였다. 본

3) 김덕명 장군에 대해서는 김제의 향토지를 주로 참고했다. 『김제의 전통』(김제군, 1982), 『모악의 선현』(김제문화원, 1991) 『우리고장 인물사』(김제문화원, 2002)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했다.

관은 언양(彦陽), 자는 덕명(德明)이고 호는 용계(龍溪)이다. 1845년 김제 원평에서 출생했고 1895년 50세의 나이로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 처형되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원평리 용계마을에서 출생해서 사람들은 그를 용계장군으로 불렀다.

김덕명은 청년시절까지 글공부에 전념했으나 42세때인 1886년 동학에 입도하고 그 해 10월 11일 경상도 상주에 있던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찾아가 도를 받았다. 1887년에는 원평에 동학의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고 포교에 힘썼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최시형과 김덕명은 사제지의를 나누며 긴밀하게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1891년 당시 호남의 동학교단은 산외면 일대와 임실을 근거로 한 김개남(金開南) 대접주, 정읍 일부와 고창을 근거로 한 손화중(孫華仲) 대접주가 있었고 김제 금구와 태인 일부 그리고 고부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김덕명 대접주가 강성했다. 전봉준과 최경선 등 훗날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이 속해있던 것도 바로 김덕명 포였고, 김덕명포는 호남에서 가장 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892년 11월 교조신원운동을 위한 삼례집회 때 원평의 김덕명 포는 교도들을 1만 명이나 동원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1893년 김덕명은 보은 장내리 집회에 참가하여 금구포(金溝包)라는 포명과 대접주의 직첩(職帖)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1894년 1월 전봉준이 일으킨 고부민란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전환하면서 김덕명은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떠올랐다. 그해 3월 21일 부안 백산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했을 때 김덕명은 오시영과 함께 총참모가 되었다.

농민군은 이후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이후 4월 27일 전주성에 입성했다. 5월 7일 농민군이 정부군과 화약을 맺고 전라도 등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자 김덕명도 원평에 집강소를 설치하며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해 청일전쟁이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동학농민군은 반외세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2차 봉기를 일으켰다. 김덕명은 2차 봉기에 참여 우금치 전투와 논산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한 농민군과 함께 11월 23일 원평으로 돌아왔다. 이곳 원평 구미란에서 김덕명은 마지막 전투를 치렀고 이후 금산면 장흥리 안정사 절골에 약 1개월간 숨어있다가 붙잡혀서 서울로 압송되었고, 1895년 3월 29일 전봉준·손화중·최경선·성두환(成斗煥)과 함께 처형되었다.

김덕명 장군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전봉준과 김덕명과의 관계다. 김덕명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호남에서 가장 강성한 동학조직을 거느린 대접주였다. 김덕명은 고창의 손화중과 정읍의 김개남과 함께 3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전봉준은 손화중이나 김개남과 같은 독자적인 포를 갖고 있지 않았고 동학교단내의 지위도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의 총대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덕명포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덕명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교조신원운동의 첫 번째 대중집회였던 삼례취회시 가장 많은 동학교도를 동원한 인물이었다.

전봉준과 김덕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평의 향토사학자인 최순식 선생의 증언을 주목해야 한다. 최순식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전봉준은 전봉준이 고창에서 태어났으나 유년시절에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황새마을로 이주한 뒤 17-18세까지 살면서 봉남면 종정마을 강당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전봉준의 외가는 언양 김씨였고 이러한 연유로 김덕명 등과 남다른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일설에는 전봉준 일가가 한때 김덕명의 집에서 식객으로 있었다는 설도 있다.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볼 때 김덕명과 전봉준은 충분한 교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기가 투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덕명이 전통적인 선비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동학교단에 입도한 것은 그의 반골기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전봉준 역시 아버지 전창진의 사건 등을 접하면서 혁명적 의식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삼례집회 이후 교조신원운동의 또 다른 대중집회였던 원평집회가 전봉준과 김덕명의 주도로 이뤄진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 원평집회에 대해서 정창열은 이 집회가 그동안의 교조신원운동과는 다른 정치적인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전봉준과 김덕명의 정치적 역량이 발휘된 사건으로 평가한 바 있다.(정창열, 1985) 동학교단내에서 지위는 낮았으나 혁명적 의식과 강인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전봉준과 막강한 세력과 실천력을 갖고 있었던 김덕명의 만남은 동학농민혁명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덕명은 실제로 전봉준의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덕명은 당시 50세의 나이로 전봉준에 비해 연상이었고 동학교단내에서의 지위도 훨씬 높았지만 동학농민혁명 전과정에서 스스로 앞에 서지 않고 늘 전봉준을 앞세웠다. 또 집강소 통치기간 중 전봉준은 바로 이곳 원평의 집강소에 머무르면서 김덕명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조율하고 있었다. 김덕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바로 이곳 원평에서 벌어졌다. 1893년 원평집회가 그랬고 전주성 입성 직전에 벌어진 정부군 처형사건이 그렇고,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전투인 구미란 전투가 그랬다. 결과적으로 김덕명은 전봉준장군의 멘토로서 정예부대를 이끄는 막후였고 병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바로 이점이 김덕명이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한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핵심 인물로 분류되고 결국 처형되는 이유가 된 것은 아닐까.

2) 원평장터

김제 동학농민혁명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원평장터다. 원평은 모악산 아래 금구와 태인 일대에서 교통의 요지로 인근 주민들은 원평장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원평장터가 처음 역사적 사건에 등장한 것은 1893년의 원평집회였다.

원평집회는 충청도 보은집회와 때를 같이 하여 김덕명을 비롯하여 전봉준·김개남(金開男)·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景善) 등이 집회를 주도했다. 여기에 남쪽에 속해있던 서장옥(徐璋玉)·황하일(黃河一)의 세력들도 섞여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원평집회에는 1만 여명이 모였고 그때까지의 동학교도들 집회 가운데 가장 강성으로 구분되었다.

원평집회는 충청도 보은집회와 함께 열린 교조신원운동의 종교집회로 열렸으나, 내적으로는 조정의 무능과 반봉건, 반외세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정치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원평집회는 고종에게까지 직접 보고되었다. 1893년 3월 21일 신임 전라감사 김문현이 고종에게 하직 인사를 할 때 고종은 “호남에서도 금구에 비도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전주감영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먼저 그 소굴을 없애서 변고를 다스리는 방도로 삼으라.” 하고 지시를 하였다. 신임 감사는 “거리가 30리쯤 됩니다만, 금구 원평은 과연 도당들의 집결지라고 합니다.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원평장터가 한번 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주목받은 사건은 기포 후 전주성 입성 직전이었다.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승리를 거둔 기세로 전주성을 향하던 농민군이 원평에 주둔하고 있을 때 전봉준 등은 홍계훈이 보낸 사자를 처형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혁명의지를 나타냈다.

홍계훈(洪啓薰)의 경군(京軍)이 보낸 이효응(李效應)과 배은환(裴垠煥)이 왕의 편지를 들고 대장소로 전봉준을 찾아왔고, 이주호는 하인 2명을 데리고 내탕금(內帑金) 1만 냥을 들고 찾아왔다. 전봉준은 내탕금을 빼앗은 뒤 원평 장터에 군중을 모아 놓고 이들의 목을 베었다. 전봉준 등 농민군의 이러한 행동은 농민군의 봉기가 조정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라는 점을 내외에 선언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원평장터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장소다. 원평장터는 지금 과거에 비해 그 위세가 지극히 축소되었지만 원평장터는 금구와 태인 일대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가 나눠지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 장터의 북적거림과 활기, 모든 소문과 소식이 소통되고 배분되는 정보의 허브로서 장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터의 활기와 활력, 생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25년의 세월을 지난 1919년 원평장터는 다시 일제에 맞서는 만세운동의 진원지가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중성이고 그 민중성이 공간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바로 장터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에서 장터가 가장 의미있게 등장하는 것은 원평집회와 전주성 입성시 농민군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전주장날의 장터였다. 특히 원평장터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활기찬 소통과 의지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데 있어서 원평장터는 중요한 공간적 자산이자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스토리의 자산이 될 것이다.

3) 구미란 전투

2차 봉기 후 우금치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일본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했다. 이 패배와 후퇴의 기간 중에 가장 고통을 겪었을 농민군은 바로 김덕명포에 속한 금구일대의 농민군들이었을 것이다. 호남의 동학농민군 중에 가장 강성했던 김개남포는 남원에서 가장 출발이 늦었고, 손화중포는 나주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는 정부군을 막으면서 협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원평 구미란 전투는 11월 25일 이루어졌다.⁴⁾ 전주를 떠난 교도병 350명과 일본군은 금구에서 25일(양력 12월 21일) 아침 6시에 출발 원평에 도착했다. <순무선봉진일기>에 나오는 구미란 전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전을 벌여 포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탄환이 비오듯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산 위에 있고 관군 등은 벌판에 있었는데 사망 주위에서 함성을 지르고 불과 연기가 덮여 원근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때 장위영 대관 최영학(崔永學)이 돌격대를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여 37명을 사살하자 농민군 모두 도망쳤다. 이 싸움에서 관군은 회룡총 10자루, 조총 60자루, 연환 7석, 화약 5궤, 자포(子砲) 10좌, 창칼 2백자루, 쌀 5백석, 돈 3천냥, 포목 10동, 소 2마리, 말 11필 등을 노획하여 일본군에 넘겼다”

관군측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농민군이 구미란 전투에서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수치로 드러나는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농민군은 이곳에서 마지막 기세를 잃었다. 전투에서 숨진 농민군들의 시신은 그후 한달여 동안 거두는 이가 없었고 선달 그림계서야 주민들이 구미산 뒷산에 몇십 구씩 시신을 묻었다는 증언이 전해져 오고 있다.

4) 구미란 전투에 대한 기록은 김은정 외(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 한울을 참조해서 정리했다.

구미란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전투였고, 그 장소가 원평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동학농민군의 최대 세력기반이자 전봉준의 세력적 본거지, 전봉준의 멘토이자 군수를 담당했던 김덕명 장군의 본거지인 원평에서의 패배는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4. 원평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과 과제

1) 원평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

① 김덕명 추모비와 학수제 뒷산

김제시 금산면 용계리 원평마을 한 가운데 있다. 1989년 원평지역의 노인회인 영락회 회원들이 김덕명장군을 기려 학수제(學壽齊) 동산에 세웠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확한 소개나 그 의미가 설명되지 않는 못하고 있다. 최순식 선생에 의하면 김덕명 장군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 학수제 뒷동산은 동학농민혁명 원평 전투지에서 죽어간 무명농민군의 집단매장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한다. 학수제 뒷산과 구미란을 두고 무명농민군 묘역을 조성하지는 여론은 분분했으나 아직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② 김덕명 묘역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안정절골에 있다. 1987년 6월 26일 후손들에 의해 묘역이 조성되었다. 묘비에는 ‘義士 彦陽金公德明之墓’ 라고 되어 있으며 맨 아래는 부인 이씨의 무덤이고 가운데 돌레석이 있는 것이 김덕명의 무덤이다. 현재로는 동학농민군 장군의 묘역이라는 특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김덕명 생가터

김제시 금산면 용계리에 있다. 김덕명장군이 용계장으로 불린 이유가 바로 이곳 출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과자공장이 들어서 있고 동학농민혁명이나 김덕명장군과 관련해서 아무런 표식도 없다.

④ 구미란 전투지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3번지 일대다. 1894년 11월 25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퇴한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을 맞아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본래 현재 김덕명 대접주의 사적비

가 세워져 있는 학수제 남쪽에 농민군의 무덤군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향토 사학자인 최순식 선생에 의하면 구미란 소나무 숲속에 버려진 피들이 무명농민군들의 묘지라는 증언을 촌로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현재 소나무 숲 사이로 무명농민군의 작은 봉분들이 수십개 남아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 묘 쓰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곳에 구미란 전투에서 희생당한 농민군의 넋을 기리자는 운동이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농민군 묘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사업도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⑤ 원평 집강소터

김제시 금산면 용계리 원평에 있다. 지금은 민가가 자리잡고 있으며 집강소터임을 표시하는 것은 없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 통치기 동안 농민군의 활동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집강소 통치기 동안 전봉준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남아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현장으로 확인된 곳이다.

2)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원평은 문제의 장소이자 공간이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장소였지만 가장 조명되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기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과 장소다.

그러나 원평은 인물과 공간 모두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기념사업에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원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김덕명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인색하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에서 김덕명은 늘 핵심적 사건의 배후에 있었지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김덕명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위상이 약한 것은 아니다.

원평이라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다. 원평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금구와 태인, 그리고 전주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갖고 있고, 민중들이 모이고 흩어지기 쉬운 장터로서의 공간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평은 여전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공간에 대한 ‘맥락의 역사’를 읽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주요 지도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김덕명은 전봉준 개인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들과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게 정신적 지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평이라는 공간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기운이 팽배하면서 동시에 물질적 힘을 갖춘

장소였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고 기념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평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광자원화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김덕명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발굴과 함께 기존의 사실들을 모아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매력적인 인물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김덕명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로 중후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두번째는 공간적 측면에서 구미란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란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장에 대한 발굴조사와 최소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무명의 농민군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들을 위한 기념사업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구미란의 무명농민군 묘지터다.

구미란은 동학농민혁명을 배태하고 성숙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름없이 참여한 사람들의 흔적이다. 이곳에까지 와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이들은 원평에 뼈를 묻어야 할 운명을 지닌 원평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원평은 어느 지역보다 미륵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이다. 새로운 세상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했던 혁명적 의식의 무명농민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다.

구미란의 지형상 관군이 포를 쏘던 장소(하천)와 농민군이 위치해있던 야산이 있고 야산 아래쪽에는 마을이 있다. 이곳을 조망공간과 참배공간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면 최소한 지금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땅의 신세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쪽 조망공간에서 관군의 관점에서 농민군을 바라보고, 진입광장을 지나 농민무덤이 있는 참배의 공간에 이르게 한다면 이 공간의 의미는 단단해 질 것이다.

세번째는 지금의 삼일운동 기념광장과 연계해서 원평집회와 원평장터를 재현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원평장터는 가늘게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원평집회일을 기념일로 삼아 원평장터를 재현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원평이 가지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원평장날에 장터를 난장으로 열고 삼일운동 기념광장에서는 원평집회를 재현하면서 일종의 시국토론회를 연다면 보기도문 지역축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신흥종교의 모산(母山)인 모악산과 원평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원평 인근의 금산사(金山寺)는 미륵불을 봉안하고 있는 미륵전이 유명하여 옛부터 미륵신

양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왔다. 뿐만 아니라 금산사가 자리하고 있는 모악산(母岳山) 역시 조선후기 이래 이 지방 민간신앙의 중심지였다. 모악산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증산교와 백련교의 발상지가 되기도 했고 수많은 무속신앙의 모태가 되었다. 따라서 모악산의 미륵신앙, 증산교, 백련교 등 신흥종교와 원평지역을 연계하면서 한국 미륵신앙의 성지로 원평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종교성지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 마무리 : 원평의 민중성과 역동성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장소다. 원평의 지도자 김덕명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처음과 끝을 기록한 인물이다. 원평집회와 구미란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의미가 명명백백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원평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미흡하고 추가적인 발굴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원평집회의 혁명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연구를 통해서 상당한 학문적 성과가 쌓여져 왔다. 그러나 김덕명의 일대기나 구미란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그래서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읽어어나가는데는 맥락과 구조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원평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과 최후의 지점이 원평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곧 김제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원평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민중적이고 역동적인 장소였다. 모악산이 가지고 있던 민중성은 원평에서 가장 민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평의 주민들중 상당수가 조선후기 미륵신앙 혹은 신흥종교를 따라 이전한 가족사를 갖고 있다. 이들의 미륵세상에 대한 열망과 민중성이 아마도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세력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김덕명은 바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면서 동학교세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전봉준이라는 걸출한 혁명가와 조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나이차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에서 아낌없이 전봉준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김덕명의 태도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그 두 사람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혁명성, 그리고 리더쉽이 원평이라는 공간의 민중성과 만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촉발되었을 것이다. 그 민중성을 대변하는 공간이 바로 장터이고, 그 장터를 통해서 동학농민군의 두 지도자는 민중의 삶과 밀착했을 것이다.

원평의 동학농민혁명이 후세에게 역사적 자원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

들' 을 보이게 하는 사실적 작업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원평에는 그에 값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 자원과 구미란이라는 피맛힌 장소가 있다. 원평의 김덕명과 구미란과 원평장터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날 때 동학농민혁명은 중요한 역사적 복원의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성(2006),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을 찾아서(3), <내일을 여는 역사> 제26호
- 김양식(2011), '충북지역 근현대 역사기념시설 분포와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역사문화학회
- 이진영(2002), '全羅道 茂朱地域의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동학연구> 제12집 한국동학학회
- 이진영(2001), '茂長起包의 성립과 全羅道 高敞地域의 동학농민혁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강분호(2003), '동학사상과 태평천국혁명의 민족의식', <동학연구> 제13집, 한국동학학회
- 박맹수(2009),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경화(2007), '기념물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전승', <인문콘텐츠> 제10호 인문콘텐츠학회
- 정호기(2005), '기념관 건립운동의 변화와 동학', <경제와 사회> 제65호, 비판사회학회
- 최정기(2008), '5·18기념공간과 사회적 갈등',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박맹수(2009) '계열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김낙철계 동학농민군 활동과 갑오 이후의 동향', <동학학보>, 동학학회
- 성주현(2009), '계열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박인호계의 동학혁명과 그 이후 동향', <동학학보>, 동학학회
- 김재영(2008), '동학농민혁명 발생의 종교,사상적 배경-발상지 전북 고부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한국신종교학회
- 신영우(2006), '경북지역의 동학연구;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동학학회
- 이현희(2004),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 - 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동학학보>, 동학학회

- 김정수(200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 정승모(1996), '문화공간으로서의 장터', 〈도서문화〉 제14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디지털 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
- 임재해(2007),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회
- 김준(2010),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 제85집, 한국사회사학회
- 조아라(2009), '문화관광지의 문화정치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 정무웅(1992), '역사적 도시에 있어서의 경관 : 도심의 외부공간과 경관', 〈건축〉 제36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 김성환(2006), '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 이 되는가?', 〈도교문화연구〉 제25집, 한국도교문화학회
- 김영범(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지승중 외 지음,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Fernand Braudel(1969), '역사와 사회과학: 장기지속', 신용하 편(이정옥 역) 『사회사와 사회학』(1982), 창작과 비평사
- Jugen Kocka(1975), '사회사-구조사-전체사회사', 신용하 편(서관모 역), 1982
 창작과 비평사
- 정창열(1985), '고부민란의 연구', 〈한국사연구〉 제48호, 한국사연구회

종합토론



이진영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장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토론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진영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발표문에는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9개)과 과제(5개)가 망라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김제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과 우선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고자 한다.

김제, 그 중에서도 금구 원평은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전봉준이 직접 지휘한 농민군의 거점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농민혁명 전 단계에 원평집회가 열렸던 곳이고, 1894년 4월 내탕금을 지니고 온 선전관 이주호와 왕의 윤음을 가지고 온 이효응, 배은환을 공개 처형하며 전주 입성의 의지를 표명했던 곳이다. 또 전주화약기(전봉준이) 전라우도를 호령하는 집강소를 두었던 곳이고, 11월 전봉준이 직접 지휘하는 농민군의 거의 최후 전투에 해당하는 구미란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처럼 금구 원평은 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각 단계마다 의미있고 상징적인 활동이 벌어진 무대였다. 특히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의 출생지나 거주지가 아니었고 농민혁명이 촉발된 곳이 아니면서도 각 단계마다 전봉준의 활동 근거지 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금구 원평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곳이 전라도 서남부지역에서 상경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경로인데다 전라감영인 전주의 턱밑이었고, 오래전부터 대접주 김덕명이 이곳에 동학세력을 크게 형성한 가운데 전봉준을 강력하게 후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농민혁명의 역사에서 금구 원평지역이 보인 두드러진 양상이다.

이 양상들은 농민혁명의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의 그것(예를 들어 정읍의 고부농민봉기, 사발통문, 백산대회, 전봉준, 손화중 등/ 고창의 무장기포, 전봉준 출생지 등/ 태인의 전봉

준 부대 최후 전투지, 김개남 등)에 비해 그 의미가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두드러진 양상이 있으면서도 이 지역의 농민혁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양상들에 대한 의미부여, 즉 금구 원평지역 농민혁명이 지니는 특징과 상징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징과 상징성이 부각되지 못한 이유는, 이 지역 농민혁명의 실상에 대한 규명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먼저 인물 문제이다. 이 지역에는 이름을 알 수 있는 많은 농민군 지도자가 있었다. 「동학사」등 당시 천도교측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는 3월 봉기때 인물만 해도 24명(금구 15명, 김제 9명)이다(고부 16명, 태인 9명, 정읍 2명, 고창 6명, 남원 14명, 임실 15명). 대표적 인물은 대접주 김덕명, 순천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영호대접주로 불린 김인배, 황등·익산·함열 일대를 지휘했던 김방서 등인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지역 농민군지도자들의 생애와 행적을 추적하면, 그 과정에 당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동학(농민군) 세력 형성과정과 규모, 농민군 참여 배경, 전봉준과의 관계, 농민군의 역할과 활동범위·내용 등이 지역 농민혁명의 구체적 실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이 농민혁명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 지역 농민혁명의 위상, 상징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집강소 문제이다. 농민혁명기 전라도 각 군현에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한 것은 농민혁명이 거둔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금구 원평의 집강소와 관련해서, 발표지는 원평에 큰 도소가 있었고, 그 도소가 전주화약 이후 원평 집강소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이 점은 문헌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발표지는 원평 집강소의 위치에 대해 금산면 원평리 184번지에 있는 가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가옥이 농민혁명 당시 원평 집강소로 쓰인 그 가옥임을 입증해주는 문헌자료는 없다. 대부분 최근의 증언에 의지하고 있다.

농민군 패퇴기에 관군이 농민군 참가자를 체포·처형하고 물자를 몰수하였으며 거점지를 초토화하였음을 감안할 때, 원평 집강소처럼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던 시설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에 다소 의문이 든다. 인용자료인 「봉남일기」중에 “경군과 왜군이 … 원평 도인들의 진을 덮쳐 불의의 도륙을 내니 도인들 중 부상을 입은 자들이 수백명이었다. … 전주성 박 주(朱) 접주의 집을 태우고, 원평 도소를 태웠다.”는 기록을 보면,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현재 집강소 건물로 추정하고 있는 가옥이 당시의 원평 집강소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집강소는 일종의 농민자치기구, 민정기구 또는 역사상 최초의 농민권력기구라는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평가를 받는 집강소의 ‘유일’ 하게 남아있는 실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

기 위해서는, 더구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정리해보자. 김제, 금구 원평지역 농민군은 대접주 김덕명의 지휘하에 전봉준과 농민혁명 전 과정을 함께 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전라우도를 관장했던 원평 집강소가 설치되었고, 당시의 집강소 건물로 추정되는 가옥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 지역 출신의 농민군 지도자들은 매우 많았고 이들은 전라우도(전라도 서남부) 일대로 무대를 넓혀 활동했다. 이런 점들은 농민혁명 전체 역사에서 크게 두드러진 이 지역 농민혁명의 현상적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나 실증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김제, 금구 원평 일대의 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이 지역의 자생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이다. 지역민이 시작하고 관이 규모를 키운 정읍지역 보다는 늦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늦게 시작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활동이 그간 더 크게 진전되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진다.

발표자가 제시한 앞의 네가지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 지역 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 지역 농민혁명에 대한 문헌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알려진 자료들 속에서 이 지역에 관한 모든 내용을 뽑아 엮고 나아가 김제, 특히 금구일대의 각 마을을 대상으로 문헌발굴 등 학술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 농민혁명의 특성에 대한 도출과 실증, 이를 통한 상징화가 이루어지면, 금구 원평은 무장기포가 일어난 당산이나 백산대회가 전개된 백산 등과 같이 농민혁명의 대표적 상징지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원평 구미란 전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장

이상균 교수의 발표는 구미란 전적지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기념사업의 방향을 잘 정리해준 연구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적지들과 비교하면서 구미란 전투의 의미를 되살리고 기념사업의 목표를 제시한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전적지의 문화자원화 혹은 관광산업화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의 관점에서 전적지를 접근할 경우 역사적 의미나 희생자들의 값진 죽음이 자칫 의미를 퇴색하고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균 교수의 구미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매우 유익하다.

구미란은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서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만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의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다. 전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시설과 보기 좋고 잘 정비된 기념비들이 아니다. 현장의 느낌과 희생자들의 비원이 느껴져야 한다.

이상균 교수가 제안한 자연경관이 최소한으로 훼손되는 보존, 학수재와 무명묘역을 연결하는 공원화사업, 김제동학농민혁명 전체와 연계하는 보존관리, 문화재 지정을 통한 의미부여와 관리방안 도출 등은 구미란에 적합한 보존 및 관리방안이라고 본다. 또 체험학습지로서의 개발, 학술제나 예술제의 개최, 원평장터의 활성화 방안 등도 의미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그러나 굳이 이상균 교수의 발표에 첨언을 한다면 너무 많은 과제와 사업들이 한꺼번에 제시되고 있다. 현재 원평의 조건과 김제시의 예산상황을 볼 때 구미란 전적지에 대해 대규모 투

자가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제시된 각각의 사업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묶고 그 속에서 대표사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관광트렌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구미란 전적지의 기념방식이다. 이곳을 보존하는 방식이 이상균 선생의 글에서 나오는 다른 전적지들처럼 잘생긴 기념비들을 세우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미란 전적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비된 현장에 거친 돌무덤들이라도 세우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소박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 마이산의 돌탑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그 돌탑들에 쌓인 수 많은 사람들의 비원과 참여 때문이다.

구미란의 무명농민군을 기념하는 방식도 그렇게 작은 돌들이 모여 탑을 이루는 방식도 있다고 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무명농민군의 위령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 세워진 베트남 참전용사의 벽과 같이 무명농민군의 벽을 세우고 그곳에 농민군의 위패와 구미란 전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선은 거칠더라도 강하고 의미있게 기념하는 참여형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최근 각 시군에서 관광의 최고 트렌드로 떠오른 길사업과의 연계다.

모악산은 지금 김제, 완주 등 각 시군에서 견고 싶은 길을 만드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 길사업과 원평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연계하는 것도 좋은 기념사업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원평 전적지 길은 좀 더 길사업의 개념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원평의 종교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구미란에서 희생당한 농민군은 동학교도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훗날 모악산을 중심으로 생겨난 많은 종교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모악산의 민족종교와 동학을 연결시키면서 이들이 꿈꿨던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자원을 연계한다면 종교관광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토론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본고는 송만오선생님의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의 토론으로 작성하였다. 원고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높고 학문적 식견도 훌륭하여 토론보다는 의견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건축적인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집강소(執綱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하였던 농민 자치기구이다. 농민군의 집강소는 1894년 2월 무장봉기 이래 점령지 군현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과 그곳의 여러 가지 민정을 처리하려고 접주(接主)나 접사(接司)를 둔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집강소 체제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물러난 뒤인 7월 초 전봉준장군과 전라도관찰사 김학진(金鶴鎭)이 농민군측과 정부측이 협력하여 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잡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 군현 단위로 집강소를 두기로 하는 관민상화책(官民相和策)에 합의함으로써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전봉준장군은 전주성 안에 농민군의 총본부인 전라좌우도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한 뒤 군현단위로 집강을 두도록 하여 집강소 체제를 갖추었다. 그 결과 나주·남원·운봉 몇 곳은 양반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설치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호남 대부분의 고을에 집강소가 농민군에 의해 설치되었다. 원래 집강소는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수령의 보조기구로서 면리 단위에 근원을 두었던 집강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이후의 집강소는 농민군의 지방 통치조직이었다. 이렇게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집강소는 그해 10월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였을 때 농민군을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후 농민군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집강소 체제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집강소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농민의 계급적 입장을 대표하면서 폐정개혁의 실시를 지향한 농민군의 지방 자치기구였다.

원평 집강소는 현재 원평시장 부근인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송만오선생님 말씀처럼 이 집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문헌자료가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동학과 관련한 자료들이 관군이나 일본군의 감시로 인해 많이 사라졌듯이 원평 집강소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송만오선생님이 조사한 역사적인 내용과 주민들의 구전을 보면 신뢰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토론자가 직접 가 본 건축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인다.

원평 집강소는 돈을 많이 번 백정 동록개(董錄介)가 동학의 개혁 평등사상에 감복하여 “신분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농민군에게 자기 집을 도회소로 사용해달라고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내용을 보면 이 집은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건축한 것을 집강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량문에 의하면 이 집은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 1882년(고종 19년)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1930년대 원불교의 교당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붕이 기와이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초가였다고 한다.

이 집은 현재 정면 4칸의 우진각지붕양식의 목조 기와집으로 된 건물 1채만 있다. 건물 전면에는 마당이 있고 주변에는 마당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는 공간이 있을 따름이다.

중앙의 2칸은 전면에 마루를 두고 양 측면에 부엌과 방이 있는 형태로 일반적인 주거건축의 양식이다. 구조는 낮은 기단위에 주초는 콘크리트 기단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고 방형 기둥을 세운 다음 민도리집으로 우진각지붕을 얹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이 지방 민가건축의 양식이다. 보존 상태는 지붕의 일부 연목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며 벽체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방치된 상태이다.

이러한 건축적 상황에서 원평 집강소의 보존과 활용방안은 전체적으로 송만오 선생님의 발표내용과 같이 역사성과 사실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토론자로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집강소의 사실성

원평 집강소건물은 상량문에 의하면 1882년(고종 19년)에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 1930년

대에는 원불교의 교당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붕이 기와이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초가였다고 한다.

이 집이 과연 주민들의 구전에서처럼 집강소건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주민들의 구전이나 여러 사실들을 볼 때 집강소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객관적이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입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각종 관련된 자료와 기록을 모아 사실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전도 현재의 증언자들이 살아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 사실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 집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제시가 이 집을 매입하고 보존하는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진정성(authenticity) · 정체성(identity)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 정체성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중시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즉, 문화유적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평 집강소는 동학운동과 교조신원운동의 발상지인 원평장터의 역사성과 더불어 시대성과 장소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원평에서 집강소가 차지했던 기능이나 위상 등의 사회적인 내용과 역사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구조에 있어서 현재는 기와지붕이지만 본래 초가집이었다는 내용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집강소 건물은 먼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집강소건물이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보존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축은 향후 문화재지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후세에게 역사적인 왜곡을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문화재 지정

집강소건물은 현재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건물의 보존상태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 집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의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집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집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사실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집강소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준비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록도 중요하고 주민이나 관련자들의 구전도 필요하다. 남아있는 기록을 찾아 정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구전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실측도 필요하다. 만약 그 과정에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면 문화재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원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건물은 건축적인 측면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동학당시 집강소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성만 반영하더라도 문화재의 지정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4. 종합정비계획(Master Plan)의 수립

원평 집강소 건물은 현재 금산면 원평의 읍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교조신원운동의 발상지이자 동학운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원평장터가 있다.

즉, 이 집은 시골 읍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면서 동학과 관련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주택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먼저 진정성과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형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집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을 따름이지 지붕을 제외하고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물을 보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집과 더불어 주변에는 동학운동과 관련하여 교조신원운동의 발상지였던 원평장터가 인접하여 있다. 그리고 김제지역에는 이외에도 동학과 관련한 유적지가 있다.

이들 여러 유적들을 각각 성격에 따라서 보존할 문화유적지와 활용할 수 있는 유적지로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집강소의 정비는 전체적인 틀로 원평이 있는 가운데 집강소 건물을 보존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원평에 동화되는 한 채의 집으로 복원하여 원평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른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강소 건물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사실적인 내용을 왜곡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변과 유리된 문화재의 정비는 문화재가 주변과 같이 살아 숨 쉬고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문화재로서 주변과 유리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화재경관 추세는 주변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대세이다.

따라서 집강소의 정비에 그치지 말고 마을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집강소나 동학과 관련된 역사유적을 연계하여 역사체험장은 물론이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제를 동학의 고향이나 민주화의 고향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김제시의 역사적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1.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김제·원평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그 의미를 사계절로 이루어진 한 해에 결부시켜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른 봄의 매화(梅花)요, 눈 덮인 산하의 동백꽃(冬柏花)”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다시, 봄(春)”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유장한 맥락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김제·원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사년(1893) 3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기치를 내걸었던 금구·원평집회는 이른 봄에 피어난 매화에 해당하고, 갑오년(1894) 11월 구미란전투는 설산(雪山)에 흩뿌려진 붉은 피, 동백꽃에 해당한다. 나아가 동학농민군 후손들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일제에 항거하여 분연히 떨쳐일어섰던 기미년 3·1운동은 다시 역사의 봄을 불러온 것에 해당한다.

2.

역사적 진실을 추구함에 있어, 기록과 기억을 통한 사실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공간 등으로 확장된 ‘또 다른 역사’, 구조와 맥락의 역사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원도연 원장의 이번 발표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보존과 공인(정당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면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차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김제·원평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김덕명장군 2)원평장터 3)구미란전투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사실적인 연구와 맥락적인 이해를 결부시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야 할 시대적 요구 앞에 놓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전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맥락적 이해를 통한 역사의 재구성은 해당 역사를 풍성하게 하고, 그 진실에 가닿는 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한글창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글창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중원의 대국(大國)인 중국(당·명·청)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주(自主)와 그로 인한 민족문화부흥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본 토론자는 한글창제에 대해 위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고려 무신정권을 지나 말기로 넘어오면서 민중의식이 크게 성장했다.

공민왕 때 실시된 신돈의 개혁정책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다. 이로써 러말선초(麗末鮮初) 사회적 분위기는 이성계의 쿠데타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다, 따라서 조선초 집권자들에게는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교육의 도구인 문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한자(漢字)는 너무 어려워 습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백성들이 손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에 나섰고 그 결과물이 한글 창제였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 세력들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홍보’하여 백성들이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글을 창제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세종은 자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세종이 위대한 군주여서, 훈민정음의 서문에서 글귀처럼 백성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창제한 것이라고는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어디까지나 세종은 전제왕조의 군주였다.) 백성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자기 권력의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글을 창제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는, 한글을 창제한 후 집현전 문사(文士)들에게 지시하여 첫 번째로 작성한 글이 다름 아닌 ‘용비어천가’ 1)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백성들에게 보다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용비어천가에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든 것이 ‘여민락’(與民樂)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맥락적인 이해를 더하면 역사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에는 반드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맥락적 이해를 통한 역사의 재구성이 자칫 사실로서의 역사를 뜻하지 않게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3.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김제·원평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그 의의는 매우 크지만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기념사업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지들에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기존의 연구성과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맥락적인 이해를 추구하여 우선적으로 [김제·원평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1) 용비어천가는 세종 시대 6명(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태종)의 범상치 않은 행적을 노래한 시(詩)이다. 용비어천가의 요지는 태조가 어느 날 느닷없이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목조 때부터 동상(왕)의 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용비어천가의 주제는 조선 건국이 느닷없는 쿠데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목조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천명)에 따른 것이라고 설파하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김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산8)

TEL. 063-538-2894 FAX. 063-538-2893

www.1894.or.kr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576-961)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0-5

TEL. 063-543-1894 FAX. 063-543-1893

출판 · 인쇄

흥디자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19-6 2F

